CHTV
CHRISTIAN BROADCAST
chtv.co.kr

# 기독일보

VISION 2035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기업 S-OIL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932호

# 기독사학 안양대,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회에 왜 넘어갔나?

## 인수 3년… "건학이념 흔들린다" 판단한 학생들 집단 반발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안양대학교가 현재 대순진리회 성주회(대순진리회) 측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기독교 색채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채플과 기독교 교양의 선택과목 전환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공식 호소문을 발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기독사학 안양대, 왜 대순진리회에 인수됐나?**

예장대신 총회 창립자 김치선 목사가 1948년 설립한 대한신학교에서 출발한 안양대는 기독교 정신을 추구한 종합대학으로 예장대신 측 목회자를 양성하는 '인준 신학교'로도 기능해 왔다. 하지만 2022년 대순진리회가 안양대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순진리회는 불교·유교·도교 사상과 민간 신앙 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신흥 종교다. 신도들이 일반 시민에게 "도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말을 건네는 포교로 익히 알려져 있다.

대순진리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양대를 대진대·중원대와 함께 종단 교육사업 기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으며, 대학 현황과 함께 안양대 홈페이지 링크도 게시하고 있다. 법인은 그대로 우일학원 명칭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인 이사장과 학교 총장이 대순진리회 측 인사로 교체되면서 실질적 운영 주체가 변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문순권 이사장은 대순진리회 관계자로, 대순진리회 산하 재단법인인 대진문화장학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2024년에 안양대 총장으로 취임한 장광수 박사도 대순진리회 측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사회(정원 8명) 역시 성주회 연관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양대와 교단과는 '인준 관계'… 외부 종파나 이단 침투에 취약**

기독사학 안양대의 경영권이 대순진리회 측으로 넘어간 배경에는, 예장대신 교단이 이사회 파송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개입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안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제1조는 법인의 목적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건학이념을 실제로 구현해야 할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이나 교단 소속을 요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우일학원 정관 제20조는 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선임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방이사 역시 '건학이념을 계승·발전시킬 학식과 덕망'을 요건으로 삼을 뿐 교단 소속 목사 등 제한 자격 요건은 두지 않았다. 개방이사 수 또한 전체 이사 8명 중 2명에 불과해, 정관상 건학이념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안양대와 예장 대신과의 관계 역시 법적 지배나 이사회 파송 관계가 아닌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 '목사 인준'을 받는 제도적 연계에 그쳐 왔다.

결과적으로 교단 차원의 제도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인 이사회 구성은 대순진리회 같은 외부 종파나 이단 세력의 유입을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는 이사 자격을 기독교 신앙과 교단 소속으로 엄격히 제한해 온 국내 주요 신학대나 기독교 대학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총신대·장신대·숭실대 등 다수 기독교 대학들은 정관을 통해 이사를 세례교인이나 교단 소속 목사·장로로 명시해, 교단 인사가 사실상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면서 건학이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외부 자본 침투 억제 등 경영권 방어에 유용한 마지노선을 마련한 셈이다.

함승수 명지대 교육학과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는 "안양대가 대순진리회로 인수되기 전후 교수들도 '안양대는 교단 산하 기독사학'이라는 자의식이 약했고, 예장 대신 교단도 안양대와 별개의 교단 산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탓에, 안양대 문제를 교단 존립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그 결과 교단에서 학교 운영 전반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양대학교 ©학교 측 제공


예장 대신 총회 임원단이 지난 8일 학내 건학이념 훼손에 반발하는 신학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했던 모습. ©뉴스에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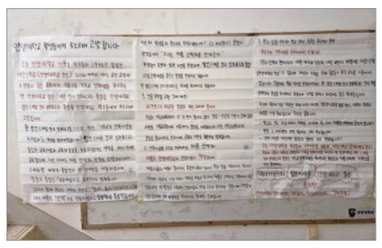


학내 건학이념 훼손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노형구 기자

**◈학교 측의 채플·기독교 교양 선택화 추진에… "건학이념 훼손" 학생들 강력 반발**

현재 안양대 재학생들은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학대학 구성원들은 최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로 채플과 기독교 교양 과목의 위상 변화를 지적한다. 기독교 개론이 올해부터 교양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된 데 이어, 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채플까지 선택과목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학대학 학생들은 호소문에서 "1948년 대한신학교로 출발한 안양대는 77년간 기독교 정신과 '한 구석 밝히기' 정신으로 성장해 왔다"며 ▲대순진리회 교리를 연상시키는 배너·비석·축제 명칭 변경 ▲기독교 개론의 교양선택 전환 ▲채플 선택화 강행 ▲기독교교육학 전공과 무관한 비기독교신자 교원의 강제 배정 등 학교 행정을 문제 삼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대순진리회 법인 체제 아래에서 안양대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대 신학과 학생들이 학교의 기독교개론·채플 필수 이수 폐지 조치에 반발하며 게시한 대자보. ©노형구 기자



안양대 건물 내부에 대순진리회 교리를 연상케 하는 '성실·경건·신념'이 적힌 배너가 걸린 모습. ©노형구 기자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과 미래에 입학할 후배들"이라고 말하고, "채플은 '사상 침투를 막아내는 마지막 방패'"라며 "현 법인(대순진리회)은 교양필수였던 채플을 교양선택으로 바꾸는 행위로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학생들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채플 선택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총 2,406명의 재학생 반대 서명지를 학교 측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강행하는 실정이다.

**◈안양대 신대원장 "채플 이수 필수 폐지는 기독교 건학이념 후퇴의 분명한 신호"**

안양대 신학대학원장 이창엽 교수는 "신학대학원장과 교목실장 차원에서 총장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선택과목 전환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며 "총장 측은 재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채플 선택화 전환 결정을 정당화했으나, 재학생 과반을 넘는 약 2,400명 이상의 반대 서명이 더 무거운 의사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엽 원장은 "채플과 기독교 개론 이수의 필수 폐지 추진은 기독교 건학이념 후퇴의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교양대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상위 위원회 등을 거치는 행정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형식적으로는 행정 결정이지만, 총장과 부총장단의 의지가 교양대학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재학생 일각에선 기독교개론과 채플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단순한 교과 개편을 넘어, 향후 대순진리회 관련 교리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안양대 재학생 A씨는 "재학생 학생들 사이에서는 채플·기독교 교양이 약화되면 그 빈자리에 대순진리회 색채의 수업·내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돈다"며 "기독교 학교에 왔는데 사이비 종교 색채가 짙은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장대신 총회 임원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8일 안양대 신학대학 학생들을 만나 예배를 함께 드리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엽 원장은 "예장 대신 총회장과 교단 임원들이 우려에 공감하고 채플에 직접 참석하는 등 관심을 표했다"며 "다만 이 문제는 결국 학교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고, 해결의 주체는 결국 학생들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 표시"라고 했다.

한편, 학교법인 관계자 측은 "채플과 교과과정은 총장의 학사 권한이며, 법인 이사회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본지는 안양대 장광수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추후 입장이 나오면 보도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함승수 명지대 교수는 "법적으로 법인 이사회가 학사에 직접 개입하면 위법"이라면서도 "총장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자리인 만큼 총장의 결정이 이사회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기독교 색채 지우기 진행되면… 기독사학 안양대서 대순진리회 교리 강제될 수도"**

교육계 전문가들은 기독교 사학 안양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인 변경 이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정체성 잠식 과정'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함승수 교수는 미션스쿨이었다가 원불교 재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안양 신성중·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법인은 바뀌어도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표면적으로 말하나, 결국 학교의 기독교적 역사와 흔적은 모두 지워진 상황"이라며 "이처럼 안양대 법인 이사회도 장기적으로는 기독교 색채 지우기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박상진 한동대 석좌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안양대는 기독교적 뿌리를 가진 대학으로, 학생들은 여전히 기독교 대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채플과 교과과정은 학사 사안인 만큼, 총장이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면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 초등 저학년들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지침서

## 『초등 1~2학년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출간

카도쉬아카데미 설립자 이재욱 목사가 『초등 1~2학년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경적 성교육 지침서로, 교회와 가정, 기독교 대안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카도쉬아카데미는 최근 한국 사회의 성교육이 개인의 선택과 권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생명과 관계,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성교육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초등 저학년에게도 성과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조기에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에 기반한 교육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책이 기획됐다고 했다.

『초등 1-2학년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은 약 12년에 걸친 신학 연구와 아동·청소년 발달 연구, 교육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집필됐다. 단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 8차시로 구성된 수업 안에는 말씀 중심의 내용 설명과 함께 활동, 질문, 기도, 가정 연계 과제가 포함돼 있다.




저자는 성교육의 1차적 책임이 가정과 교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와 교역자, 주일학교 교사,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대구경북백인회 "정교분리는 침묵의 이유 아닌 신앙 자유의 토대"

### 최근 성명서 발표… "교회, 사회적 어둠 속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백인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의 본뜻을 회복해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교회는 신앙과 교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교분리의 헌법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교분리는 교회가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신앙적 침묵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바탕으로 정교분리 개념을 재조명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는 교회와 국가의 성격을 구분하면서도 단절이나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교회는 사회 윤리와 도덕, 인간의 존엄과 정의 문제에 대해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의 사회 참여를 금지하거나 위정자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용도로 정교분리를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북백인회는 "설교자와 목회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책무가 있다"며 "부정과 불의 앞에서 교회가 침묵한다면 이는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백인회 단체 사진 모습. ©대구경북인회

최근 열린 대구경북백인회 모임에서 발표자로 참여한 최덕성 총장은 정교분리 가치의 본뜻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교회는 교회를 장악하려는 정치세력이나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종교 권력의 시도를 거부한다"며 "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정의가 흔들릴 때 이를 분별하고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교회의 자기 쇄신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결의문에는 △교회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 △어둠을 밝히는 역할 회복 △신앙의 자유 수호 등 신앙적 목표가 담겼다.

대구경북백인회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비상시국"이라고 평가하며 교회가 신앙적 책임 의식을 갖고 연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온 국민과 전 교회가 일어나 빛과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권요한, 권용근, 김호규, 류승남, 문계완, 박치근, 이병도, 이재근, 이창호, 전재규, 조신자, 최덕성 목사 등 12명이 기초위원으로 참여했다. 대구경북백인회 측은 온라인 서명을 통해 성명 참여를 추가로 받고 있다. 노형구 기자

#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청교도는 현실적 대안이다

### 설교·목양·상담을 아우르는 '청교도 목회 실제' 세미나, 1월 청라서 개최

청교도 신학에 관심은 있지만 이를 실제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영혼을 세우는 목회, 청교도에게 배우다'를 주제로 한 1일 세미나가 오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인천 청라에 위치한 예수하나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됐다. 주최 측은 이론 중심의 신학 강의가 아니라 오늘의 목회 현실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청교도 설교와 목회, 그리고 성도의 양심과 내면을 다루는 목회 상담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강의는 청교도 설교 이해로 문을 연다. 서문강 목사(중심교회 원로)는 청교도 설교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교리 해설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씀을 통해 성도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설교의 본질을 조명할 예정이다. 강의에서는 청교도 설교가 성경 본문을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끌어와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했던 실제 사례와 원리를 다룬다.

이어 서창원 교수(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는 청교도적 교회 목양에 대해 강의한다. 그는 프로그램과 행정 중심의 목회가 아닌, 성도의 영적 상태와 내면의 성장을 깊이 살폈던 청교도들의 목회 방식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재정과 인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영혼 중심 목양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의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마지막 강의는 정성우 목사(예수하나교회 담임)가 맡아 청교도적 목회 상담을 다룬다. 정 목사는 청교도들이 인간의 문제를 심리 기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상담의 목표를 감정적 위로에 두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데 두었던 청교도들의 관점을 소개한다. 강의에서는 존 오웬과 리처드 십스 등 청교도 신학자들의 양심론을 바탕으로, 실제 목회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의 구조와 질문 방식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청교도 목회는 대형 교회를 전제로 한 목회 모델이 아니었다"며 "오늘날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처럼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를 세워갔던 목회의 실제가 청교도 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등록자에게는 마르투스 출판사 서적과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교통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영적 위로와 실제적인 목회 유익을 함께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 다일공동체, 제38회 거리성탄예배 연다

### 소외계층·독거 어르신과 함께하는 성탄의 기쁨과 나눔의 자리 마련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가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소외계층과 독거 어르신, 거리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제38회 거리성탄예배를 준비했다. 이번 거리성탄예배는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며, 밥퍼 실내와 마당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거리성탄예배에는 약 2,0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예배에 앞서 준비된 식전 공연을 통해 성탄의 분위기를 나누고, 이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오랜 시간 다일공동체와 함께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돼,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리성탄예배는 사회적 소외계층과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일공동체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전했던 모습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거리성탄예배를 통해 홀몸 어르신과 거리의 형제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사진은 과거 제37회 거리성탄예배를 드렸던 모습. ©다일공동체

# 제15회 이태석봉사상 수상자에 이대성 의사 선정… 동아프리카 의료선교 헌신

### 케냐 오지에서 의료시설 건립·무료 진료 이어온 외과 전문의, 생명 살리는 나눔 실천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제15회 이태석봉사상 수상자로 이대성(52) 의사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회는 약 60여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활동 지원금 3천만 원이 수여된다. 이대성 의사는 간담췌 외과 전문의이자 선교사로, 2014년부터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사는 의료시설 건립과 운영, 무료 진료, 환자 의뢰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는 케냐 나뉴키 지역에 정착해 지방 정부 병원의 협력 의사로 근무하며 지역 주민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현지 의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시연을 진행하는 등 의료 교육에도 힘써 왔으며, 오지로 이동 진료를 나서고 수술비가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장학금 지원과 식량 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사업회는 전했다.

이대성 의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나눴다기보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밝히며, 이번 상을 함께해 온 조력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제15회 이태석봉사상 시상식은 내년 1월 15일 오후 5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케냐 메루병원에서 진료하는 이대성 의사의 모습.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 제231차 성경말씀사경회·한중연합집회, 오산리금식기도원서 개최

### 말씀과 기도로 국경을 넘어 쉼과 회복을 모색하다

제231차 성경말씀사경회 및 한중연합집회가 오는 2026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벧엘성전에서 개최된다.

이번 집회는 한국과 중국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집회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회복과 쉼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말씀사경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로 정해졌다.

주최 측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질병과 관계의 상처, 경제적 부담, 정서적 고통 등 다양한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집회 강사로는 김바울 목사가 나선다. 집회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등록비는 10만 원으로, 집회 첫날부터 전 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집회 도중 합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은 2026년 1월 9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 신용백 목사 낙태 반대 1인 시위… “교회 외침, 의미 가질 것”

### 국회 앞 시위… “창조질서·다음세대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담임목사이자 군목 출신인 신용백 목사가 최근 국회 6문 앞에서 열린 1인 시위에 참여해 낙태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 목사는 이날 현장에서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며,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신용백 목사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무관심과 침묵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전했다. 그는 “우리가 법을 알고도 무관심하여 그 법의 제재 속으로 삶이 던져지는 경우가 많다”며 “몰라서 침묵하고, 몰라서 진리의 외침조차 하지 못한 채 사명을 잊어버리는 현실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외침이 글이든, 시위든, 강단의 메시지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라며 “침묵하지 않는 교회의 외침은 반드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낙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 차원이 아닌 구조적·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덕윤 장로회 회장은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낙태를 둘러싼 논쟁의 복잡성을 짚었다.

이 장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존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임신 20~24주 이전 낙태를 조건부 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각 주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려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로는 교회가 낙태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교회의 우려는 단순하다. 이 법이 누구는 보호하고 누구는 보호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와 논의가 생명 보호의 형평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소속 제양규 교수 역시 현행 낙태 논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 교수는 “겉으로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헌법 제10조와 헌법재판소 판결 모두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태어나야 생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 교수는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임신 10주 이후 낙태 제한’ 법안을 언급하며, “상식적이고 최소한의 생명 보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단체와 법조계,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의 최근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과거에는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사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덕윤 장로는 실제 통계를 인용해 낙태가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낙태 경험 여성의 약 61%가 주변의 권유나 강요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답했다”며 “낙태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적 압박과 환경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신용백 목사가 낙태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태여연



낙태 반대 1인 시위 참석자 기념 사진. ©태여연

이날 참석자들은 낙태 반대가 단순한 금지나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적·법적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과 태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낙태 관련 형법의 장기적인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형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가 더 이상 입법 부작위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형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다음 주부터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과 연대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 서명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 ‘난민 위한 복음 전파와 지원 활동에 진력’

### DO BEFORE 난민기구, 제2회 ‘감사와 후원의 밤’ 개최

국제 개발구호단체 ‘DO BEFORE 난민기구’는 지난 1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돌베개교회에서 제2회 ‘감사와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난민 사역의 현황을 공유하고 후원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DO BEFORE 난민기구’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절망 속에 놓인 이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개발구호단체이다. ‘DO BEFORE’라는 이름에는 “Do Best for the Refugees(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의미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신앙적 사명이 담겨 있다.

행사는 1부 오프닝 리셉션으로 시작됐다. 예민수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 서빙고캠퍼스)가 말씀을 전했고, 이어 두비포 사역의 주요 장면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손일 이사장이 단체의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대표자 인사를 전했으며, 서요셉 사무총장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향후 비전을 소개했다. 이어 박희연 들꽃잠 대표가 로힝야 난민 아웃리치 사역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박종길 목사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가 원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난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짚었다. 그는 난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해 보이셨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전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전한 사건이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서요셉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로힝야 난민들의 현재 상황과 함께 단체가 품고 있는 사역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난민 사역에 헌신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초기 사역 과정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난민들을 만나 식량과 기초 생필품을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무슬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역팀은 지속적인 만남과 돌봄을 통해 난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난민들에게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희망을 전하고자 ‘DO BEFORE 난민기구’를 창립하게 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서 사무총장은 미얀마 로힝야 난민들이 전기와 교육 환경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난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린이센터 건립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역이 개인적인 기도와 헌신에서 출발했지만, 단체로 운영되면서 여러 도전과 어려움도 함께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개발구호단체 ‘DO BEFORE 난민기구’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돌베개교회에서 제2회 ‘감사와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주최 측 제공

현재 방글라데시 현지에서는 4명의 사역자가 난민들을 직접 섬기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예산 3만 1,500달러 가운데 약 30%가 난민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아웃리치와 긴급 지원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

두비포 난민기구의 핵심 사역 중 하나인 제1차 로힝야 난민 사역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체는 2024년 5월 난민캠프 내에 어린이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로힝야 난민 아동 50명과 방글라데시 현지 초등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돌봄 사역을 펼치고 있다.

간증을 전한 박희연 들꽃잠 대표는 현장에서 마주한 난민 아이들의 삶이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집과 음식조차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직접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순히 후원금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 난민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손을 맞잡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난민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교육과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파송의 시간에는 여러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무대에 올라 난민 사역에 대한 비전과 각자의 소명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왜 로힝야 난민 선교를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난민 사역이 지닌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김도일 선교사와 백윤정 선교사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교육과 복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난민들이 받는 교육과 복음이 그들의 삶과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전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난민들을 위한 후원 참여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후원금 모금에 동참하며, 행사에서 나눈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을 가졌다. ‘DO BEFORE 난민기구’는 후원자들에게 사역의 성과와 후원이 난민들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와 후원의 밤’은 난민 사역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난민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DO BEFORE 난민기구’는 앞으로도 난민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 한동대, 신임 총장에 박성진 포스텍 교수 선임



한동대학교 제8대 총장에 박성진(57·사진)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한동대학교(이사장 이재훈)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박성진 신임 총장은 1991년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와 미시시피주립대학교에서 연구원 및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연구부처장, 산학처장,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 산학협력실장을 맡았다. 현재는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4년이다. 김진영 기자



# 생명보험재단, 생명 구한 사회적 의인 14명에게 시상

**생명보험재단, '2025 생명존중대상' 시상식 통해**
**사회적 의인 및 문화예술 부문 총 23명 시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5 생명존중대상' 시상식 통해 사회적 의인 14명과 문화예술 부문 및 특별상 9명 등 총 23명 시상을 시상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최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5 생명존중대상' 시상식 통해 사회적 의인 14명과 문화예술 부문 및 특별상 9명 등 총 23명 시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대상은 2009년부터 17년째 일반시민·경찰소방·해양경찰 등 각 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의인과 문화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확산한 공로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사회적 의인 부문에는 일반시민 5명, 경찰 3명, 소방 3명, 해양경찰 3명 등 총 14명을 선정했다. 일반시민 수상자 중에는 의식을 잃고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해 자신의 차량으로 추돌·정차시킨 뒤 신고한 노주석 씨, 침몰사고 현장에서 바다에 표류하던 승선원 6명을 구조한 박훈태 씨 등이 포함됐다.

문화예술 부문 인물 분야에는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온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콘텐츠 분야에서는 'Be:Live U 60초 영상제' 입상 5개 팀이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2011년 'SOS 생명의전화'를 기획하고 도입한 당시 기획자들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SOS 생명의전화를 총괄 기획한 박성민(전 생명보험재단), 한강교량 안전시스템을 구축한 이준상(전 소방청), 상담시스템을 설계한 길정수(전 생명의전화)씨다.

특별상을 수상한 박성민씨는 "2011년 당시 생명보험재단에서 SOS 생명의전화를 기획하며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그동안 함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만들어온 생명보험재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본부장은 "생명존중대상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며 "특히 올해는 한강에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해 온 'SOS 생명의전화' 기획자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17년간 생명존중을 실천한 사회적 의인 827명을 발굴·시상했으며(경찰 251명·소방 272명·해양경찰 86명·일반시민 218명), 문화예술 인물 및 콘텐츠 공로자를 조명해 왔다. 문화예술 인물 부문에서는 2023년 배우 김남길, 2024년 배우 신애라와 방송인 송은이·김기리·문지인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14년간 서울 한강교량 20곳에서 'SOS 생명의전화'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 5월 서울숲에 도심형 상담전화 'SOS 마음의전화'를 설치할 예정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확산해 생명존중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 장기기증으로 생명 나눈 이웃들, 2025 GKL 이웃사랑실천상 수상



(왼쪽부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홍성희 씨와 생존 시 신장기증인 김미분 씨가 이웃사랑실천상을 수상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생존 시 신장기증인 선정돼**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린 이웃들이 2025년 GKL 이웃사랑실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홍성희 씨와 생존 시 신장기증인 김미분 씨는 생명나눔과 이웃 사랑 실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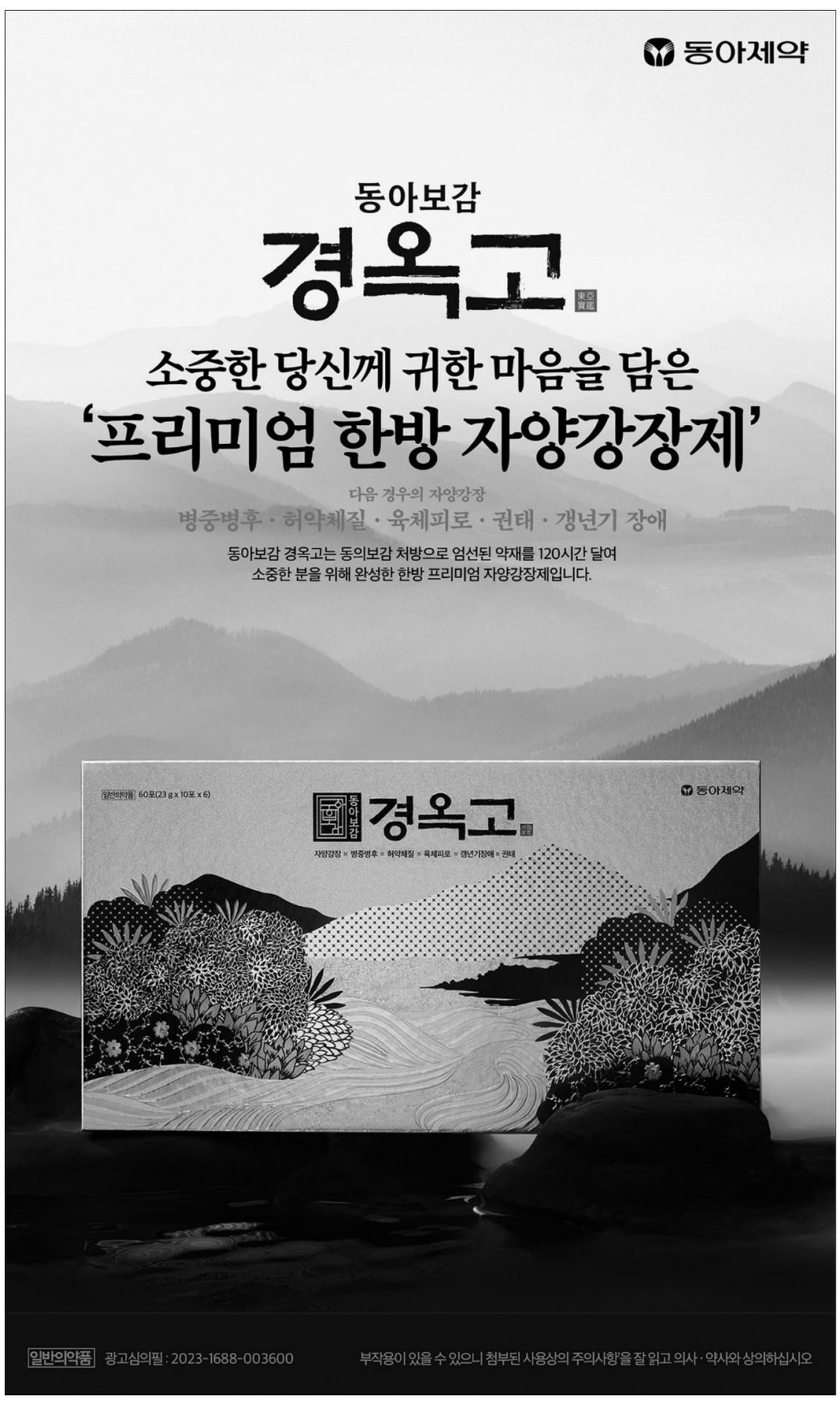
GKL사회공헌재단은 최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GKL 이웃사랑실천상·사회공헌상' 시상식을 열고, 약 5개월간의 공개 모집을 거쳐 총 2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선행을 이어온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희 씨는 2024년 5월 뇌사 장기기증으로 다섯 명의 생명을 살린 고(故) 한영광 씨의 어머니다. 당시 30세였던 한 씨는 낙상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심장과 폐, 간, 신장 등을 기증해 중증 환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남겼다. 홍 씨는 타인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들의 삶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을 결단했다고 전했다.

사별 이후에도 홍 씨와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잇는 나눔을 이어갔다. 지난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올해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를 위한 장학금 기부에 참여했다. 또 도너패밀리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과 연대해 왔다. 함께 수상한 김미분 씨는 2006년 생면부지의 농부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생명을 살렸다. 경남 사천시에서 여관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이후에도 경로당 연탄 기부와 어르신 초청 행사, 아동 지원 활동 등 지역사회 나눔을 지속해 왔다.

김 씨는 나눔은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사람의 생명이 변화되는 경험 이후, 생명나눔의 길을 계속 걷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최승연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 쪽방촌 찾아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

**8000만 원 상당 800상자**



행사 참석자들이 쪽방촌 이웃들을 위한 '희망박스'를 들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후원하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이웃들을 위한 나눔행사를 가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굿피플은 최근 서울특별시립 돈의동 쪽방상담소에서 '2025 찾아가는 성탄절 사랑의 희망박스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는 겨울철 한파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자 굿피플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병윤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이용기 굿피플 회장, 유재학 CJ제일제당 SU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사랑의 희망박스'는 총 800박스(8천만 원 상당) 규모로, CJ제일제당의 후원 등이 더해져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일부는 돈의동 쪽방촌 주민 495가구에 우선 지원됐다.

행사는 사회를 맡은 구세군 장규영 사관의 진행에 따라 내빈 인사말,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주요 내빈들이 5개 조로 나누어 쪽방촌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이영훈 목사와 김병민 부시장 등도 가정을 방문해 희망박스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갑작스러운 추위로 고생하시는 쪽방촌 주민들께 큰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성탄절 앞두고 쪽방촌 독거어르신 위한 행사 열려

쪽방촌 독거어르신 초청 '성탄절 사랑의 밥사랑 잔치와 선물전달식' 및 고독사 제로를 향한 '고독생프로젝트 사업'이 최근 서울 포구 대흥동 신생명나무교회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및 거동 불능한 독거노인을 섬기는 소셜서비스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와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이 암재활 전문기업 비오신코리아(주)(대표이사 강종옥)와 함께 개최했다.

장민욱 사무총장(해돋는마을, 신생명나무교회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장헌일 목사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날"이라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처럼 엘드림 어르신 모두 영생의 천국 소망을 갖고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에스더 회장(엘드림노인대학 학장)은 "외롭고 힘든 쪽방촌과 독거어르신들 위해 매년 성탄절을 맞아 기도하고 사랑의 밥퍼로 섬기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비오신코리아 강종옥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해돋는마을

김진영 기자

# 이스라엘관광청, 햇살과 파도에 담은 성탄의 메시지 전해

**산타 복장 서퍼들,**
**텔아비브에서 따뜻한 연말 인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텔아비브 해변에서 산타 복장을 한 서퍼들이 연말연시 인사를 전했다. ©이스라엘관광청

이스라엘관광청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텔아비브 해변에서 산타 복장을 한 서퍼들이 파도를 타며 연말연시 인사를 전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산타 복장의 서퍼들이 텔아비브 해변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파티용 컵케이크, 음료 등을 준비한 뒤 함께 준비운동을 하고, 지중해의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크리스마스와 하누카를 기념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영상을 제작한 텔아비브 글로벌 관광청은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와 따뜻한 명절 인사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텔아비브에서는 하누카와 크리스마스 모두를 기념하는데, 이는 유대인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텔아비브 도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정신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어 "지난 두 해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온 텔아비브로 다시 돌아온 산타 서퍼들과 함께 한 이번 영상을 통해, 텔아비브가 다시금 세계와 연결되고, 텔아비브를 의미하는 햇살과 해변의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전할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 인도네시아서 크리스마스 앞두고 가톨릭 교회 폐쇄 요구 논란

**서자바 보골 지역 성당 리모델링 두고 무슬림 단체 시위…**
**허가 적법성 놓고 공방 이어져**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톨릭 교회의 건물 보수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일부 무슬림 단체가 교회 건물이 불법이라며 폐쇄와 철거를 요구하면서, 지방 정부와 교회 측,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1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자바주 보골군 구눙푸트리 지역 틀라중 우딕 마을에 위치한 성 빈첸시오 아 파울로 가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이슬람 역량강화·개발기구(BP2UI) 소속으로 알려진 약 20명의 무슬림들이 주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교회 건물 철거와 폐쇄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불법 교회를 폐쇄하고 철거하라', '규정을 조작하는 교회를 해체하라', '공동체를 배신하는 교회를 해체하라', '갈등을 조장하는 교회를 철거하라', '국가를 분열시키는 교회를 해체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BP2UI 대변인 안하리 술토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교회가 약 25년 전 건축될 당시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건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성탄절 준비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새로운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넷랄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골군 종교사무소장 아흐마드 슈크리는 시위 현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위가 벌어진 점에 유감을 표하며, 시위에 참여한 인사들 역시 지난 11월 17일 보골군 국가통합·정치위원회(Kesbangpol) 회의에 참석했고, 해당 회의에서 교회 건축 허가가 완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흐마드 슈크리는 당시 회의에서 교회의 허가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쟁점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대가 교회 건축 허가에 대해 국가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유는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 교회 측은 시위대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교회 법률대리인 시프리아누스 에디 하르둠은 교회 건물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 빈첸시오 아 파울로 교회가 2000년 12월 21일 발급된 건축허가(IMB) 번호 645.8/182TRB/2000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디에 따르면, 해당 교회의 설립은 1969년 제정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공동령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 공동령은 종교 발전과 신앙 활동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관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규정에 따라 교회 설립이 승인됐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이 같은 이유로 2006년에 제정된 종교부·내무부 장관 공동규정 제9호 및 제8호가 규정한 새로운 허가 절차가 이번 리모델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의 건축 허가가 2000년에 발급됐기 때문에, 이후 도입된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에디는 1969년 공동령 제28조 1항을 근거로 들며, 공동령 시행 이전에 지방정부가 발급한 예배당 건축 허가는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조 2항은 기존 허가를 받은 예배당의 경우 위치 변경이 없는 한, 보수·개축은 기존 허가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가 기존 건축 허가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해석은 2021년 제정된 건축법 시행 규정인 정부령 제16호 제346조 1항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한편 구눙푸트리 지역장 쿠르니아 인드라를 비롯한 일부 지역 인사들도 이번 시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치안 당국이 교회에 반대하는 특정 무슬림 단체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골 교구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성 빈첸시오 아 파울로 가톨릭 교회는 원래 서자바주 치비농의 성가정 본당 소속 공소로 시작했다. 이 공소 예배당은 1996년 PT 페리 손네빌이 기증한 약 1,000㎡ 규모의 부지 위에 세워졌다. 오랜 행정 절차를 거친 끝에, 현재의 교회 건물은 2001년 9월 1일 완공됐다. 교구 측은 당시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교회는 1,800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회 건축이 불법이라는 소문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확산됐다고 교회 측은 밝혔다.

에디는 소문이 확산되자 틀라중 우딕 마을장 유수프 이브라힘이 10월 10일 성 빈첸시오 아 파울로 교회의 본당 신부 에코 신부와 교회 관계자들을 마을 사무소로 초청해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후 11월 6일 지방정부는 교회가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11월 8일 유수프 이브라힘 마을장은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 공동체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1월 13일, 교회 측은 BP2UI가 '불법 교회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보골 군수에게 보낸 서한의 사본을 전달받았다. 에디는 해당 서한의 내용이 과도하고 선동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픈도어(Open Doors)는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서 이슬람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도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극단주의 성향의 단체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최승연 기자

# 한국VOM "베냉 교회 폐쇄 압박, 8개월 만에 변화"

부두교의 영향력이 강한 아프리카 베냉에서 교회 폐쇄 위기에 직면했던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8개월간의 고난 끝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했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 대표 현숙 폴리)가 18일 전했다.

한국 VOM에 따르면, 베냉 서부 도시 사발루(Savalou) 지역의 교회들은 '소음 규제 조례'를 이유로 당국의 반복적인 단속과 체포, 고액 벌금에 시달려 왔다. 일부 목회자는 체포됐고 여러 교회는 예배 중단 위기에 놓였다.



베냉. ©한국VOM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기독교 박해가 정부나 이슬람권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과 달리, 베냉의 경우 박해의 근원이 부두교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며 "베냉 인구의 약 40%가 부두교 등 전통종교를 믿고 있으며, 현 대통령 패트리스 탈론도 부두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탄압은 2023년 성탄절 전야에 본격화됐다. 당국은 사전 경고 없이 사발루 지역 목회자들을 체포했고, 빅터 아다무(Victor Adamou) 목사의 교회는 소음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악기를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2024년 2월에는 아다무 목사를 즉시 체포해 수감했다.

아다무 목사는 한국 VOM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럼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히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희생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감옥에서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후 석방됐지만, 사건 이후 일부 성도들은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배 참석을 중단했다.

탄압은 여름까지 이어졌다. 2024년 8월 21일, 이미 벌금을 납부하고 악기 사용을 중단한 교회에서도 경찰은 마크 조소(Marc Djosso) 부목사 부부를 체포했고, 이어 담임목사까지 구금됐다. 세 사역자는 9일 동안 구금된 채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신앙을 고백했다고 한국 VOM은 전했다.

그러나 연말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2024년 말, 기독교인 체포에 관여했던 부두교 신봉자 공직자들이 직위에서 해임됐고, 시장은 투옥됐으며, 지방검찰총장은 강등되고 경찰서장은 조기 퇴직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새로 부임한 행정 당국자들은 교회와의 협력을 약속하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압수된 악기와 장비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벌금도 환불되지 않은 상태다. 예배 출석은 회복 단계에 있지만,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현지 교회는 담대함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으며, 부두교 신봉자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어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이들의 꿈"이라고 말했다.

조소 부목사의 아내 탈리아 야쿠부(Thalia Yacoubou) 사모는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괜찮다"며 "다니엘을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VOM은 베냉 교회가 직면한 박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다. 노형구 기자

# 이란 법원, 기독교 신앙 이유로 개종자 등 중형 선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과 목회자 등 기독교인들이 신앙 활동을 이유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국제 인권단체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1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에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낙상 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은 여성 개종자는 중태에 가까운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아티클18에 따르면, 아이디아 나자플루는 지난 10월 21일 열린 이란 혁명재판소 제15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총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나자플루는 같은 날 재판을 받은 다른 기독교인 4명과 함께 총 50년이 넘는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에 포함됐다.

나자플루에게 선고된 형량은 개정된 이란 형법 제500조에 따른 10년형을 비롯해, 이른바 '집회 및 공모' 혐의로 추가 5년, 소셜미디어 활동과 관련한 '선전' 혐의로 2년이 더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 아래 일반적인 종교 활동에도 적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이란 사법부 내에서 강경 판결로 알려진 아볼가셈 살라바티 판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자플루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2층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척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부위 감염으로 병원 치료를 다시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척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란 전국저항위원회 산하 여성위원회 역시 나자플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전하며, 척수 손상으로 인한 전신 마비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란의 누적형 집행 규정에 따라 나자플루가 실제로 복역해야 할 형량은 가장 긴 10년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는 이란-아르메니아계 목회자인 요셉 샤바지안과 기독교 개종자 나세르 나바르드 골타페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가정교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과거 수감 생활을 한 뒤 사면을 받았으나, 지난 2월 다시 체포돼 재수감됐다. 이들은 이전 수감 기간을 합쳐 총 6년 이상을 복역한 바 있다.

또 다른 피고인으로는 샤바지안 목사의 아내 리다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 한 명이 포함됐다. 리다는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형법 제500조에 따른 10년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최소 두 명은 '집회 및 공모' 혐의로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이후 이들의 개인 소지품, 성경과 기독교 서적 등은 정보부의 '조사 목적'이라는 이유로 압수됐다.

아티클18의 만수르 보르지 국장은 이번 재판이 장기 구금과 과도한 보석금 요구 등 절차적 문제를 다수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샤바지안과 나자플루, 골타페는 약 7개월간 구금된 뒤에야 법정에 섰으며, 샤바지안의 경우 공식적인 보석금조차 책정되지 않은 채 가족들에게 혼선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나자플루와 골타페에게 요구된 보석금은 각각 약 13만 달러와 25만 달러에 달해 현실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골타페는 재구금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뇌졸중을 겪은 바 있으며, 샤바지안 역시 이전 수감 기간 동안 건강 악화를 경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르지 국장은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2010년 연설에서 가정교회를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발언을 근거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법적 폭력과 박해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개신교와 이른바 '시온주의 기독교'를 동일시하며, 해외 이란 기독교 단체들이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인권단체들은 전했다.

검찰은 샤바지안에 대해 복음 전파 활동을 범죄로 규정했다. 골타페에 대해서도 페르시아어 성경을 보관하고 배포한 사실을 들어 불법 행위로 지적했으나, 그는 신앙의 일환으로 성경을 배우고 나누려 했을 뿐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연 기자



#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 팬데믹 이후 첫 연합 찬양의 장

### 강현규 목사 메시지 전해…
### "왜 크리스마스인가?"



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했다. ⓒ주최 측 제공



찬양제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인랜드 지역 한인 교회들이 지난 12월 13일 오후 4시 갓스윌교회(담임 강현규 목사)에서 성탄 연합 찬양제를 개최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했다.

1부 예배는 김성계 목사(남가주훼로십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예배는 '천사 찬송하기를'와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윤창률 목사(인랜드 ANC온누리교회 담임)가 기도했다.

이어 강현규 목사(갓스윌연합교회)가 '왜 크리스마스인가?'라는 제목의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강 목사는 "성탄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뻐해야 할 날"이라며,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강조했다.

예배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후 이희철 목사(갓스윌연합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김미진, 김만덕 장로, 남가주훼로십교회, 인랜드 ANC온누리교회, 마원철 목사, 미주새한교회, 언약교회, 이상배 장로, 기타교실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찬양과 연주로 성탄의 기쁨을 더했다. 참석자들은 각 팀의 찬양을 통해 성탄의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강현규 목사가 인사와 기도를 전하며, 성탄 찬양제를 통해 지역 교회들이 다시금 연합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는 이번 성탄 찬양제를 계기로 지역 교회 간 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랜드 지역 한인교회 성탄찬양제가 열린 갓스윌연합교회(God's Will Alliance Church)는 지난 11월 30일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를 이끌어온 이희철 목사의 40여 년 목회여정을 기리고, 제7대 담임으로 부임한 강현규 목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김민선 기자

# ANC온누리교회 '인싱크', 태국 반타와이 교회 사역 보고



태국 반타와이 교회 사역 현장 모습. ⓒ교회 측 제공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소속 '인싱크(InSync, New Step Education in Christ)' 선교팀이 태국 반타와이 교회를 방문해 성탄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인싱크 팀은 기도편지 및 선교 보고를 통해 "작년에 비해 반타와이 교회가 한 층 더 성숙해지고 분명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특별히 이번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인싱크 팀에 따르면, 이번 반타와이 교회 방문을 통해 성탄의 의미,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여신 날"임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했다. 구원 초청 시간에는 예배에 참석한 약 100여 명 가운데 95% 이상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기도에 동참했다.

이들은, 기도편지에서, 이날 예배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20대 청년, 질병에 걸린 듯 안색이 어둡고 야윈 여성,150km가 넘는 먼 곳에서 온 불교 신자 부부, 70세 불교도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보고했다.

선교팀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예배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을 초청한 성탄 축제가 열렸다. 선교팀은 참석한 모든 이웃에게 정성껏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사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시니어 성도들의 적극적인 복음 증거가 꼽혔다. 인싱크 팀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기독교 인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태국에서 이들의 변화와 헌신을 통해 내년에는 2%, 이후에는 4%로 배가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교팀은 마지막 사역으로 왓산콩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1일 VBS를 위해 중보를 요청했다.

인싱크 팀은 "모든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일정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선 기자

# LA여성선교합창단, 깜짝 공연으로 성탄의 기쁨 전해

지난 12월 12일, 12시에 LA 겔러리아 쇼핑 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다. 연말을 맞이하여 LA여성선교합창단의 Flash mop 선물로 우울했던 12월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연주한 것. 이날 합창단은 7-8곡의 크리스마스 캐롤로 예수 탄생을 노래했다.


LA여성선교합창단 공연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LA여성선교합창단은 외롭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전현미 지휘자의 인도 아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동양선교교회 비젼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연락처:** 213) 820-2888 / 213) 703-2568

김민선 기자

# 이준호 주미국대사관 공사, 주애틀랜타총영사로 임명

이준호 주미국대사관 공사가 주애틀랜타총영사로 임명됐다. 외교부는 미 남동부 지역을 관할하는 애틀랜타총영사관의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 관계의 실질적 협력과 교민 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총영사는 1970년 4월 24일생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 샌디에이고)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핵 문제와 한미 관계, 다자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축적해 온 외교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1994년 외무부에 입부한 이후 이 총영사는 주영국대사관과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미국대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며 외교 현장 경험을 쌓았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인사운영팀장과 북핵정책과장, 외교전략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정책 수립과 조직 운영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과 국회사무처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입법부와의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러한 이력은 복합적인 외교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승연 기자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 개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가 지난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사랑나눔 전달식, 3부 총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찬용 장로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증경회장 정도영 장로의 기도와 출애굽기 24장 1~11절 성경봉독 후 충현선교교회 원로 민종기 목사가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헌금기도는 회계 최덕원 장로가 맡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사랑나눔 전달식에서는 회장 이득표 장로의 인사말과 함께 국내외 신학교, 선교단체, 교회, 개인 사역자 등 총 30곳에 사랑나눔 후원이 전달됐다. 이 자리에는 극서부신학대학, 고신신학대학교, 멕시코와 네팔 선교지, 우크라이나 사역, 재소자 및 마약 갱생 사역 등 다양한 선교 및 구제 사역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3부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 및 회계·감사 보고가 진행됐으며, 제51대 회장 선출도 이루어졌다. 공천보고 후 제51대 회장으로 한경환 장로가 당선됐으며, 한 장로는 당선 인사를 통해 협의회의 연합과 섬김 사역의 지속을 다짐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는 지난 1년간 기도와 물질로 협의회를 후원한 증경회장단과 고문, 자문위원,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장소를 제공한 임마누엘선교교회 이진경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김민선 기자



#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김성만 대표회장 연임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 18일 총회 및 송년 감사예배… 안혜진 이사장도 연임



왼쪽부터 안혜진 이사장, 김성만 대표회장



예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한기원)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이사장 안혜진 목사가 연임하며 임기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기원은 18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12월 총회 및 송년 감사예배에서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기로 하고, 2026년에도 복음의 본질을 최우선시하며 한기원 사역에 내실을 기하고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11월 19일 한기원 증경회장 모임에서 김성만 목사는 제27대 회장에 이어 제28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김성만 목사는 이날 “우리는 이 복음을 다음세대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임을 믿으며,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이 땅에 소망과 회복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기원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인준해 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6년 사업계획으로 회원배가 운동, 한기원 사무실 마련, 한기원의 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외부 초청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제1부 예배는 한기원 총무처장 방광민 목사(팔복교회)의 사회로 한기원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누가선교회 대표회장, 한국신학연합회 대표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또 한기원 교수 김홍식 목사(누가선교회 이사)의 대표기도, 누가신학대학원 원우 김만환 전도사의 성경봉독, 한기원 찬양단(지휘자 김현실 목사)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에 이어 한기원 이사장 안혜진 목사(열방교회)가 ‘한기원과 함께하시는 주님’(단 6:25~28)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안 이사장은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의 국가, 선교의 국가가 되기 위해 원로목사님들부터 (주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기원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한기원을 주님께 맡기자. 여러분이 중보기도자가 되어 멋지게 일어나는 한기원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한다”고 말했다.

한기원 부이사장 김옥기 목사의 헌금기도 후 3세대가 함께하는 열방선교회 찬양단의 은혜로운 봉헌특송이 있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한기원 총무국장 손영철 목사(JB포럼 상임대표), 한기원 부회장 윤병선 목사(영광교회), 한기원 공동회장 현광희 목사, 한기원 부이사장 김홍철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전 총회장)가 각각 ‘한국교회 연합과 회복’, ‘나라의 안정과 회복’, ‘한기원의 부흥 발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한기원 상임고문 민승 목사가 축도했다.

제2부 한기원 총회는 김성만 대표회장의 사회로 한기원 총무처장 이중택 목사의 기도, 회원 호명과 개회선언, 한기원 제23대 대표회장 김동원 목사의 대표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선언과 꽃다발 증정으로 진행됐다. 또 김성만 대표회장의 인사말, 한기원 재무처장 황금애 교수의 재무보고, 한기원 감사 김세영 목사, 문송철 목사의 감사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고, 김성만 대표회장이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제3부는 한기원 사무차장 박만진 목사(예장개혁총회 총회장)의 사회로 한기원 제25대 대표회장 김원식 목사의 격려사, 한기원 법률자문위원장 임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의 축사, ㈜메디헬프라인 대표이사 박옥남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치매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 질환의 원인인 염증, 독성단백질 등을 줄일 뿐 아니라 기억력 증강, 무기력 및 우울증 개선 등 두뇌 건강 관리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뉴로에이피 제품을 소개하며, 한기원 회원 및 지인들 가운데 퇴행성 뇌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 제품이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또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뉴로에이피 1박스를 제공했고, 필요시 제품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을 전했다.

이어 김성만 대표회장은 이사장 안혜진 목사와 추첨을 통해 당첨된 김광호 목사에 400만 원 상당의 줄기세포 시술 쿠폰을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만세삼창 순서에서는 최종일 목사, 석태월 원장, 백정순 목사, 이경수 목사가 대표로 나와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 기독교 만세! 한기원 만세!’를 외치고, 한기원 공동회장 김봉옥 목사의 마침기도 및 식사기도 등으로 일정을 마쳤다. 박만진 사무차장은 “한기원 각 부서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 제22기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오미자 회장 취임

### ‘평화와 공존·공동 성장 차세대 육성’ 비전 제시


오미자 신임 회장

샌프란시스코 OMC 그룹 오미자 대표(빌립보교회 집사)가 최근 샌프란시스코 포스터시티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오 회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35개의 식당을 경영하고 식품 유통기업인 OMC 그룹을 세운 크리스천 사업가로, 한국기독실업인회(한국CBMC) 미주서부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지회 회원으로 15년간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 버클리대학 근교에 있는 빌립보교회 집사로 30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2년 임기로 세 차례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상임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오미자 회장은 1986년 800불을 들고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의 오클랜드로 도미,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하면서 이민생활을 시작하여 현재는 한식당, 일식당, 베트남식당, 이탈리아식당 등 35개 식당을 운영하고, 식품·육류 등 유통망을 갖춘 OMC 그룹을 일궈내 ‘여자 정주영’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오 회장은 취임사에서 22기 샌프란시스코협의회의 가치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차세대와 함께 여는 온 코리아의 미래’를 제시했다. 중점 과제로는 △사실과 분석·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 건의 △역사·문화·멘토링을 결합한 차세대 평화·통일 교육 △정치색을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류·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 속 평화 실천 △회계·회의·의사결정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세대·경험·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존중과 협력의 조직 문화 구축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회장 등 주요 지역 인사가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지희 기자

**안보칼럼㊾** 6.25 한국전쟁의 진실

# 대한민국의 정체성·정통성(上)


이범희 목사

6.25 한국전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동란의 주범):** 북한의 가짜 김일성(본명 김성주)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불법 무력 남침을 ‘폭풍’이라는 신호로 개시했다.

**2.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켰는가?:** 불과 2년이 안 된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부는 총동원령을 내리고 국민은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쳤고, 또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동참했다. 당시 유엔에 가입된 94개국 중 67개국이 전투병과 의료지원, 물자 지원으로 한마음이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3. 왜 6.25 동란을 기억해야 하는가?:** ①1945년 8월 15일 이후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던 세력이 지금도 이 땅에 각종 가면을 쓰고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②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까지 통일성전이라는 거짓으로 엄청난 사상자와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공산 세력이 지금도 남조선 해방을 외치며 도발하고 있다.

③남,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남한의 공산화 목표가 변하지 않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적화 전략이 변하지 않았으며, 남한 내에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가 아직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④동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남편을 국가에 바친 미망인들의 아픔, 형제와 부모를 나라에 바친 유족의 고통, 평생을 상이의 고통과 노동력 상실로 경제력을 잃은 상이용사, 치열한 전쟁터에 대한 공포심으로 몸서리치는 참전 노병들의 깊은 상처는 오직 국가와 국민이 보훈으로 치료하고 보은해야 한다.

이제는 남북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한다. 과거 여러 정권이 북한에 따뜻한 손을 내미는 햇볕정책을 제시했지만, 북한 정권은 아직도 6.25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침략을 일삼는 저들의 만행을 잊어선 안 되고 보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4.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불시에 불법 침략을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죽임을 당할 그때 우리의 생명과 국토를 지켜준 그분들, 죽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져낸 유엔 용사와 후원국에 이제 우리가 보답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숙한 나라임을 증명해야 한다.

**5. 세계국가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6.25 동란 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비참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주요 20개국인 G20을 비롯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개발원조위원회) 등의 회원국이 되었고, 정치·경제·문화·스포츠·복지·예술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넘어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6.25 때 우리를 지원했던 나라에 감사하고 그들이 필요를 요구할 때에 응답해야 한다.

6.25 이후 김일성은 6.25의 책임을 박헌영과 남로당에 전가시켰다. 그리하여 정적 제거와 자기 책임을 동시에 모면한다. 6.25는 남북의 양극화 체제와 미·소의 사상전이 아니라 남북이 한 핏줄, 한 형제임을 잊고 사상의 철천지원수임을 경험했다.

이제 우리는 6.25의 진실을 바로 알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고하게 새기며, 국가보훈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지구촌 섬김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라질뻔한 신생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 참전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46개국 등 총 67개국의 정성 어린 지원이 있었다. 이들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이요 친구가 되게 하자.

이범희 목사(㈔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6.25역사기억연대 역사위원장)



# 니카라과, 입국 관광객 성경 반입 금지… 기독교·시민사회 탄압 강화

니카라과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더 이상 성경을 휴대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기타 인쇄물과 전자 장비에도 적용되며, 국경에서 반입이 금지된 품목 목록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행됐다.

이는 시민 자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려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영국의 종교자유 옹호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티카버스(Tica Bus) 터미널에 게시된 안내문에 성경을 비롯해 신문, 잡지, 서적, 드론, 카메라 등이 흉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과 함께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티카버스 지역 관계자는 마나과로 향하는 승객들이 "성경, 신문, 잡지, 모든 종류의 책, 드론과 카메라"를 소지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CSW는 전했다. 또 온두라스 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최소 6개월 이상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니카라과에서 수년간 지속돼 온 시민 자유와 종교 표현의 축소 흐름 속에서 나왔다. 그동안 수천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폐쇄됐으며, 종교 단체들은 감시와 구금, 공공 종교 행사 취소 등의 조치를 받아왔다.

2018년 4월 이후 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독립 시민사회 단체는 5,000곳 이상으로, 이 가운데 1,300곳 이상이 종교 단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언론 분야에서도 잉크와 종이 수입에 대한 통관 제한으로 인해 2019년 대표적인 독립 일간지였던 '엘 누에보 디아리오(El Nuevo Diario)'가 폐간됐다.

정부와 연계된 단체가 아닌 경우 공공 종교 행렬은 금지됐으며, 여러 사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활동 전반에 대해 국가의 승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교회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2018년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당시, 히노테페에 위치한 '라 로카 데 니카라과 교회



©pixabay

연합' 설립자인 개신교 목사 팔라시오스 바르가스를 비롯한 성직자들은 경찰의 학생 폭력을 규탄했다.

이후 2019년 해당 교회연합은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신앙 기반 단체들을 겨냥한 법적·행정적 압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18년 제정된 외국자금 관련 법률을 통해 NGO들에 대한 재정·법적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는 시위대에 피난처를 제공해 온 가톨릭 기관들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는데, 이는 이틀 전 발표된 비판적 보고서에 대한 대응이었다. 유엔 보고서는 오르테가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종교 자유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관 아리엘라 페랄타는 정부가 "자국민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부통령이자 대통령의 배우자인 로사리오 무리요는 해당 보고서를 "중상모략"이자 조직적인 음해라고 반박했다.

CSW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 '완전한 통제: 니카라과에서 독립적 목소리의 말살'은 종교 행사 취소, 경찰 감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주간 출석 보고 의무 등 222건의 종교 박해 사례를 기록했다. 같은 해에만 46명의 종교 지도자가 구금됐으며, 일부는 곧 석방됐지만 다른 이들은 장기간 억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CSW의 미주 담당 옹호국장 안나 리스탱글은 성경과 인쇄물 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현재의 억압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조치는 즉각 철회되고 기본적 자유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디지털 세대 Z세대가 바꾸는 학생 사역의 지형… IFES 새 보고서 발표

국제복음주의학생연맹(IFES)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Z세대의 등장 이후 학생 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영국과 홍콩, 이슬람권 국가 2곳을 포함한 8개 지역에서 학생, 사역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가 신앙 관련 콘텐츠를 접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이전 세대와 뚜렷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는 길고 교리적인 설명보다 짧지만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학생은 "내 친구들은 기독교가 '옳은지'보다 '진짜인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정보는 유익함과 함께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됐다.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와 예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영적 안내자 없이 이를 개인적인 신앙 경험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지점에서 학생 사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는 세계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많은 Z세대가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도 각자의 정체성이 존중받는 것을 Z세대가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Z세대는 자기 돌봄, 웰빙, 정신건강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어,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와 학생 단체가 이러한



©pixabay

영역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피로와 정신 건강 문제는 조사 대상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요 우려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Z세대는 교회와 학생 공동체를 포함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웰빙에 대한 요구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학생 사역은 이에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Z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영적 변화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인 피터 드레이는 "Z세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러한 깊은 변화는 전 세계 학생 사역에 매우 흥미로운 기회이자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학생 환경 속에서 사역의 적응과 세대 간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보고서가 Z세대와 효과적으로 협력해 세계 대학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러 드론 생산 단지에 북한 여성 1만여 명 파견될 듯

북한이 러시아 타타르스탄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의 드론 제조 공장에 1만여 명의 여성 근로자를 파견할 전망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38 NORTH)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북한이 알라부가에 1만2000명의 근로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일본 NHK 방송은 2만500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고 최근 노동자 숙소를 크게 늘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 병사, 학생, 연구자, 심지어 식당 노동자까지 러시아로 보낸 북한이 이곳에도 근로자를 파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알라부가의 드론 공장에는 기존에도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저소득 국가의 18~22살 사이의 여성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돼 왔다.

이에 따라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조사를 시작했으며 젊은 여성들에게 알라부가 취업을 피하라는 경고를 내고 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알라부가 드론 생산 단지의 노동자 숙소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며 최대 4만1000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SIS는 러시아 업체 RPK 모듈이 제작한 모듈식 컨테이너 침실 내부 사진을 분석해, 알라부가에 들어서는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들과 설계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극도로 비좁은 공간과 중앙집중식 건물 구조는 중국 내 북한 공장 노동자 기숙사 배치와 유사성을 보인다.

ISIS는 완공된 조립식 기숙사들이 최대 1만3840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곳에 파견될 북한 근로자들은 중국의 수산물, 전자, 섬유 공자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기술자와 연구자들도 함께 파견해 러시아의 게란-2 드론 등의 제조에 대해 학습하게 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북한의 드론 제조 근로자 파견은 외화 획득을 넘어 북한 무기 제조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자체 '자폭 드론'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에서 생산되는 게란 2 드론이 일회용 '자폭 드론'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유사한 드론 생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 사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은 초기 이란군사 조직 사하라 선더와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샤헤드 드론을 생산했으나 이후 독자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설계를 개선해 왔다. 강영진 기자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법안 상하원 통과

**트럼프 서명하면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전환에 예산 지출 금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0일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올해 법안은 총 3086쪽 분량에 달하며 예산 허가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31조원)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였던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도 담겼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 총 8억 달러(매년 4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으며,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위한 6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대만 안보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10억 달러 예산 편성 등도 명시됐다. 문예성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 사계절맛 제철기부

##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를 평하게 하고
근육을 기르며 속을 따뜻히 해
기운을 돋으며 번열을 제거한다.
또한 소화기병을 가진
허약체질의 환자에게
식이 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한 美국방수권법안, 美의회 최종 통과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 예산 제한 재도입**
**사상 최대 국방 예산 속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0일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 방향과 연간 국방 예산 운용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핵심 입법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제정된다. 올해 통과된 법안은 총 3086쪽 분량에 달하며, 국방 예산 허가 규모는 9천1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331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의 지휘 구조로 전환하는 데에도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같은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였던 2019년부터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던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계획도 담겼다. 미국은 향후 2년간 총 8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며, 매년 4억 달러씩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이언돔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체계 협력을 위해 6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방안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대만과의 안보 협력 프로그램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를 통해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수권법안 통과가 향후 한미 안보 협력과 동북아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전작권 전환 제한 조항이 다시 명문화되면서, 한미 동맹의 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은혜 기자

# 대법,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추진… 무작위 배당 유지

**여당 법안과 별도 대응… 집중 심리 근거 마련하되 판사 지정은 배제**

여당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 배당 방식은 기존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규에는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의 대상 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한정됐으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건을 상정했다.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도록 했고,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 배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장이 해당 재판부에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정하는 배당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판사 추천권을 외부 기구에 부여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번 예규 제정 논의는 서울고법이 내란 사건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항소심을 대비해 집중 심리 필요성을 건의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부 내부 회의에서도 여권 주도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공정성과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잇달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전직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이 사법부 스스로도 신속한 내란 재판을 위한 제도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위헌 논란과 절차 지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예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서울 전·월세 상승폭 9년 만에 최대, 임차인 부담 확대

**부동산 규제 속 '전세의 월세화' 가속**
**고가 월세 증가에 주거비 압박 커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월세 비중은 확대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폭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는 전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1월 이후 9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월세 지수 상승률이 0.64%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은 0.39%, 단독주택은 0.25% 상승했다.

전세 물건 부족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57.6%였던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2월 61.4%로 처음 60%를 넘긴 뒤, 10월까지 9개월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고가 월세 거래도 빠르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5주간 서울 아파트 신규 월세 거래 중 월세 100만 원 이상 계약은 2870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147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0만 원 이상 오른 수치로, 4인 가구 중위소득 대비 약 24%를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기조가 임대인의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이 10% 오를 경우 전세 가격이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인상과 함께 취득세·양도세 조정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 경찰 기동대·기동순찰대 감축… 수사 인력 전환으로 민생 치안 강화

**수사관 1200여 명 배치·총경 인사 연내 마무리 전망**

경찰청이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대폭 줄이고 수사 중심의 민생 치안 분야로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현장 수사 부서에는 수사관 1200여 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며, 반년 가까이 지연된 하반기 총경 인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여 명씩 감축하고, 수사부서에 1200여 명을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1907명의 인력을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수사, 초국가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분야에 중점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전담 수사팀 인력을 942명 규모로 확대해 관련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대응 공백 우려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탄핵 정국 등 특수 상황으로 증가했던 집회·시위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대 인력은 범죄 예방 순찰과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 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총경 인사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역시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12·3 비상계엄 가담 책임 인정

**전원일치로 국회 통제·선관위 병력 배치 위헌 판단**
**경찰청장 첫 파면 사례**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계엄 실행에 관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파면된 첫 고위 공직자이자,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첫 경찰청장으로 기록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 300명이 국회 출입문을 중심으로 배치돼 출입이 전면 통제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 역시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계엄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위법한 해산이나 체포 명령에 관여했다는 국회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파면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각각 기각됐다.

박용국 기자

# “성탄,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

### 한교연 2025년 성탄절 메시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사진〉, 이하 한교연)이 18일 ‘2025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죄와 죽음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메시지에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라며, 폭력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 자유와 평화, 화해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확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교연은 인간의 죄성을 직시하며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쳤다”며, “살인자 폭도 대신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 주셨다”고 선포했다.

한교연은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사명과 직책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골 3:9),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엡 4:24)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아울러 한교연은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해 “이미 빛과 소금으로 지은 바 됐으니 그 사명을 따라 살라고 명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죄에서 해방된 이들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이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연은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주님은 화평과 자유를 주러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태초의 혼돈과 무질서의 어두움에 덮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쟁과 분쟁으로 황폐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주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냉대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네 이웃’이라고 하셨다”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마 19:21~22)는 말씀을 상기시켰다. 더불어 북한 주민들을 언급하며 “포악한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자유와 생존을 포박당한 채 신음하는 2천6백만여 명의 형제자매들”과 “숨어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구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시 146:7)라는 말씀의 성취를 기도하며,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유를 증거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자”고 호소했다.

김진영 기자

# “성탄,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사건”

### 김정석 감독회장 2025년 성탄절 메시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사진〉이 2025년 성탄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며,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세상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했다.

김 감독회장은 성탄의 의미를 전하며 “‘말씀이 육신을 입어’(요 1:14)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를 강조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사 9:2)라는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이 “현실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죄악과 혼란, 불안한 미래 속에 놓인 현대인의 현실을 언급하며 “참된 평안과 자유,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감독회장은 “우리 주님은 억압과 핍박, 전쟁과 재해, 모든 고통 받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주신다”며, 이 빛은 “절망의 고통과 멍에를 제거하며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성탄은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마 1:23)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로 알려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를 인용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과 슬픔,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와 탈북자들,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 다문화 가정과 외롭고 소외된 이들 모두에게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회장은 성탄의 또 다른 의미로 화평을 제시했다. 그는 “성탄은 미움과 갈등, 억압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사건”이라며(사 9:6),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라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동시에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힘’이 아닌 겸손과 섬김을 통해” 참된 화평의 길을 여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탄의 축복이 임할 때 “상처 입고 단절된 관계성은 회복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해 “‘평화’(샬롬)가 폭력과 전쟁이 거듭되는 세상에 널리 퍼져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동역함”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김정석 감독회장은 “성탄의 기쁨이 모두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도들이 “분열과 갈등의 도구가 아닌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라며, 진리와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기장 총회장 “성탄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구세주의 길… 약자와 함께해야”

### 2025년 성탄 메시지 발표 “평화·치유·회복의 사명 감당하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가 2025년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따라 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총회장〈사진〉은 메시지를 통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은총이 2025년의 끝자락을 지나는 모든 교회와 이웃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님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구유로 오셨다. 그 탄생의 자리가 곧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먼저 예수께서 사회적 약자의 이웃으로 오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자신의 언어로 삼으셨다”고 밝히며, 오늘날 “빈곤과 차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언급했다. 이어 “교회는 그들 곁을 지키며 모두가 행복한 메시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했다.

또한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 임하는 평화의 의미를 강조하며, 분쟁 지역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평화(Shalom)’는 단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질서”라고 설명하고, “지금도 빗발치는 총탄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캄보디아와 태국 그리고 분단의 장벽에 갇힌 한반도에 메시아의 평화가 임재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재난과 사회적 참사를 겪는 이들에 대한 연대도 강조했다. 메시지는 “탐욕과 부조리가 빚어낸 사회적 참사와 기후 재난의 거대한 아픔 앞에 서 있다”며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교회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드는 일에 연대하며, 상처 입은 창조 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총회장은 교회의 사명을 현재의 자리에서 실천하자고 요청했다. 메시지는 “구세주의 탄생을 감사하며 영접하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약자의 이웃이 되고, 전쟁의 땅에는 평화를 심으며, 재난의 자리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구세주의 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 “성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클라이맥스”

### 서헌제 박사, 14일 중앙대 대학교회 주일예배 설교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사진〉가 최근 중앙대 대학교회에서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갈 4:4, 막 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서 박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갈 4:4, 막 1:15)고 말한다. 성탄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준비하신 길 위에 이루어진 구원의 방문”이라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시점이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정치·문화·언어·종교·사회 전체가 ‘준비된 때’였음을 선언하는 구속사적 고백”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길을 영적으로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다. 세상 역사도 성육신을 위한 공간으로 다듬어 놓으셨다”며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준비된 때’를 이해하는 핵심적 배경을 제공한다(눅 2:1, 3:1)”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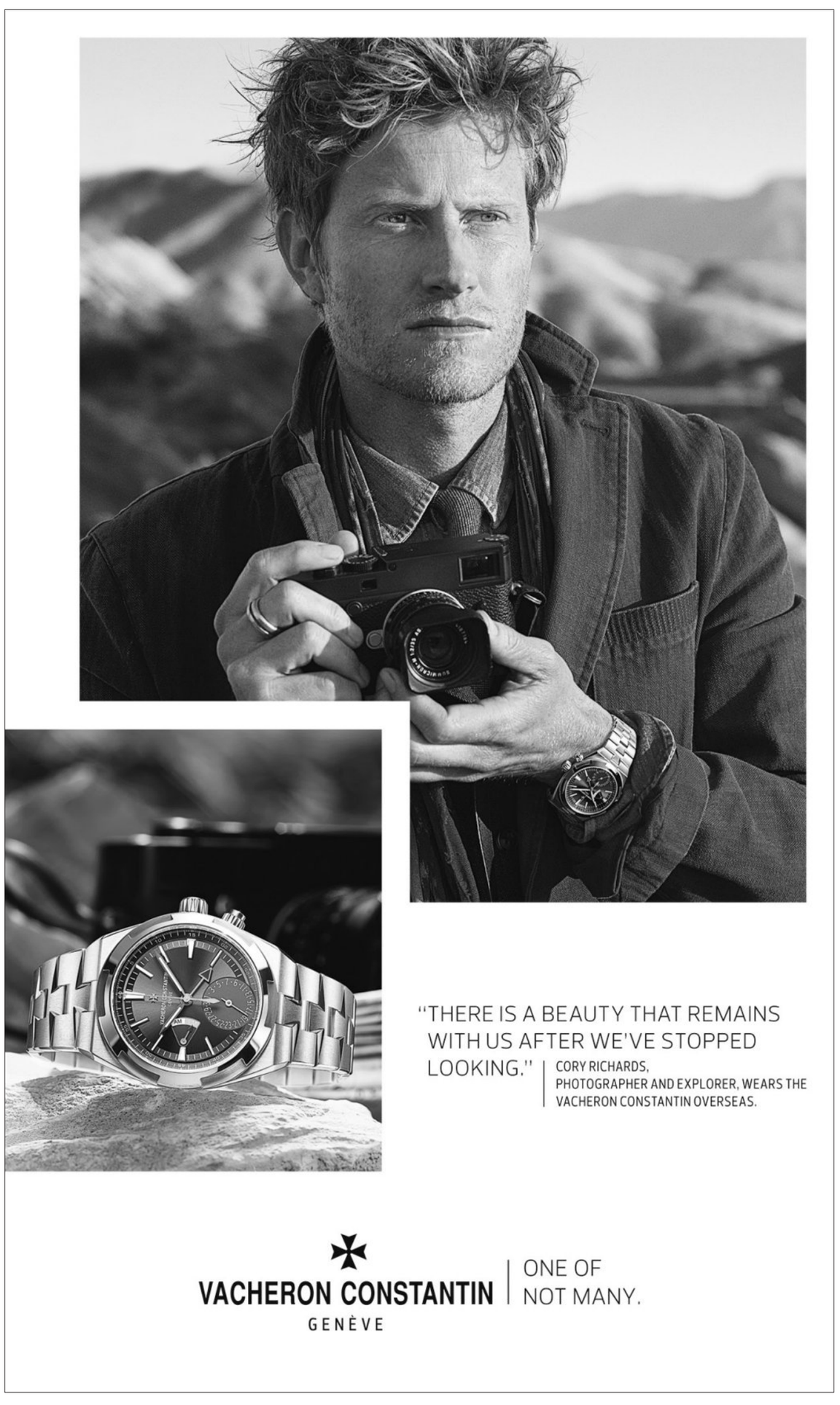
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200년간 이어진 ‘팍스 로마나’(Pax Romana)는 전쟁이 멈추고 이동이 자유로워진 전례 없는 문명적 안정기였다. 이 평화는 훗날 사도들과 초기 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공간이 되었다”며 “로마 제국은 40만 km 이상의 도로와 항만, 교역로를 정비했다(행 28:15). 이 길은 군사적 목적을 넘어, 사상과 소식이 흐르는 문명 네트워크가 되었다. 사도바울의 선교여행, 사도들의 이동, 편지 전달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길 위에서 가능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성취되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지중해 세계는 대부분 코이네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사용했다. 신약성경이 이 언어로 기록되면서 복음은 즉시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먼저 언어를 준비하시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며 “또한 로마의 법체계와 시민권 제도는 초기 기독교의 전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사도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도적 통로였다(행 23장-28장). 한편 당시 수많은 신을 섬기던 로마 사회는 영적 허무 속에 있었다(행 17:22-23). 이방인의 이러한 영적 갈급함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 겹쳐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 “이처럼 로마 제국의 평화, 길, 언어, 법, 문화, 영적 환경은 모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예비하신 ‘섭리의 무대’였다”며 “그 모든 것이 충만해진 순간, 성경은 말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시간에 이루어진 구원의 클라이맥스”라고 했다.

끝으로 서 박사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길과 준비된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길을 준비하시고, 때를 준비하시며, 충만한 순간에 이루시는 완전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 트레일 위의 목회자: 영·혼·육 균형이 가져온 새로운 충만

## [인터뷰]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목사가 말하는 '응답하라 1992!'



신윤석 목사(좋은나무교회)는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잊지 못할 한 시점, '응답하라 1992'에 대해 나눴다. ⓒ미주 기독일보 TV기독일보

많은 크리스천에게 신앙 여정에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여러분의 신앙 추억은 어느 해인가?"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담임목사에게는 1992년이 바로 그해이다. 지난 11월, 신 목사는 TV 기독일보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에 출연해 진행자 곽윤영 집사와 이성일 목사와 함께 자신의 신앙 여정 중 잊히지 않는 '응답하라 199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신 목사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요철야기도회에서 들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통용'이 그에겐 '하나님과의 소통'의 의미로 다가왔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원치 않던 기도를 시작했을 때, 마음속 찌꺼기가 불에 타 사라지듯 주님과의 소통 장애물이 제거되는 경험을 했다.

다음은 신윤석 목사가 진행자들과 나눈 하나님과의 소통 이야기이다.

**-목사님께서는 처음부터 신앙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신윤석 목사:** 가정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자셨습니다. 이미 1992년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벌써 33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청렴하고 정직하며, 세상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머니는 저희 가정의 초대 신앙이십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도 전도되셨고,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온 가족은 물론 사촌, 육촌까지 복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속 신앙에 익숙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부딪히며 가족을 감화시키는 과정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저의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연로하신 연세에도 여전히 기도로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고 느끼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신윤석 목사:** 모든 이야기는 '응답하라 1992'로 귀결됩니다. 1992년 1월 31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철야 기도 시간에 중생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부 수련회에 참여해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제 안에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금요 철야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통용'이 제게는 '소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간구에 불과했습니다.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 다.

한 번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안에 있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스킵해 버렸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제 마음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어둠 컴한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막혀 있던 동굴 같은 심령에 빛이 들어오듯, 마음이 열리고 제 마음을 어둡게 막고 있던 찌꺼기들이 불에 태운듯 사라지고, 마음 깊은곳까지 밝은 빛이 비췄습니다.

그날 밤 회개의 기도가 밤새 이어졌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날짜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31일입니다.

**- 그때 바로 목회자로 헌신하셨나요?**

**신윤석 목사:** 사실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간경화와 당뇨 합병증으로 위독하셨고, 셋방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치오니 제 아버지를 살려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생명을 11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가 바로 제가 대학을 졸업한 해였습니다.

**- 그 11년 동안, 목회자의 길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신, 신학교에 가 보니까 정말 거룩한 신앙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좀 더 제가 덧붙인다면, 경제적인 삶을 보면, 부자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월말이면 통장에 몇 십불, 마이너스가 되어서 메꿔야 하는 생활이 지금까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잠들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기름 병으로 채워주시면서 지난 30여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 중에는 성대 마비와 고관절 신경 통증이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대에는 곰팡이 감염이 발생했고, 다리를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적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통증이 가실 때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사임하고 긴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저에게는 고난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제 몸을 돌보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저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예배당, 새벽 기도, 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 혼, 육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레일을 걸으면서, 주님과 교재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제목들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시간 두 시간 걷다 왔는데, 제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고 제 입술, 제 영혼에 찬양이 넘쳐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은 '목회자 자기 관리'라는 박사 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저에게 역사하신 거 있다면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회를 하여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 같습니다.

**- 그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목회를 그만하라는 뜻인가 하고 그냥 내려 놓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신윤석 목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백을 제가 왜 안했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목회 사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인생의 결정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간 동안, '목회자의 자기 관리'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난을 겪으며, 전인적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것에 대해 공부하며, 책을 읽고 있던 중, 교수님의 격려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필렌의 새벽별 교회에서 3년간 주일 설교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설 문제로, 2025년 6월 말로 주일 설교자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3주가 지났을 때, 좋은나무교회에 설교자로 가게 되었고 공동회의 청빙을 통해 담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서 이루고 싶은 목회는 무엇입니까?**

**신윤석 목사:** 저는 사랑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고, 어머니가 가족을 돌보듯 섬기고 싶습니다.

주디 한 기자




# 제니 맥카시, 찰리 커크 사망 후 신앙 고백

### 전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커크 피살 이후 겪은 신앙 변화 공개적으로 밝혀


제니 맥카시. ⓒScreenshot/YouTube/Culture Apothecary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플레이보이 플레이메이트 출신 배우이자 방송인 제니 맥카시가 보수 성향의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 이후 자신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1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에게 "완전히 항복했다"고 표현하며, 신앙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전했다.

맥카시는 지난 11일 팟캐스트 '컬처 아포세커리(Culture Apothecary)'에 출연해 진행자 알렉스 클라크와 대화를 나누며 현재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1994년 플레이보이 '올해의 플레이메이트'로 선정된 바 있는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척 애를 써야 하지만, 나는 직접 연결된 것 같다"며 "예수는 나에게 아주 가까운 존재"라고 말했다. 자신이 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찰리 커크가 지난 9월 암살당한 사건 이후 예수께 훨씬 더 헌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맥카시는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은 이후 부모 권리 옹호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폐에 대해 연구하던 중 일부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자료를 접했고, 그 과정에서 강한 영적 에너지를 느끼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 알리게 하되,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반대 입장으로 인해 연예계에서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아들을 계속 돌보셨다"고 말했다.

맥카시는 권위에 대한 질문, 정부의 개입 축소,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와 같은 가치들을 자신이 받아들인 보수적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가치관이 자신의 신앙 여정과 맞물려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찰리 커크의 사망 직후, 그는 CCM 가수 캐리 조브의 찬양곡 '더 블레싱(The Blessing)'에 맞춰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한 바 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커크의 죽음을 회상하며, 그가 해오던 사역이 매우 귀중한 일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커크에 대해 단일한 서사만 접했기 때문에 그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 역시 협박을 받아온 경험이 있다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기 위해 용기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커크와 자신이 닮았다고 언급했다.

커크의 피살 이후 그는 깊이 무너졌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의사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즉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며, 듀오모(Duomo) 묵상 앱을 추천하기도 했다. 또한 남편인 배우 도니 월버그와 함께 커크의 죽음 이후 더욱 신앙적으로 헌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로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카시는 커크가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커크가 세상을 변화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었다. 이는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 했다.

한편 커크의 추모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한 CCM 아티스트 크리스 탐린 역시 그의 죽음 이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영적 각성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현장에서 사람들이 공연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 같다고 느낀다며,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미상을 수상한 탐린은 커크 추모식 이후 계속 투어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일 무대에 오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삼위일체 창조관과 과학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피조물 안에 남겨진 신적 흔적을 찾는 신학적 시도**
**계시를 떠나지 않으면서 자연과 이성을 복음의 조력자로 이해하기**

Ⅰ. 삼위일체 창조관

**1. 이신론(理神論)에 대응하는 성경적 삼위일체 신관**

1) 창조를 믿는 종교는 기독교뿐이 아니다. 2) 성경을 믿는 종교도 다양하다. 3) 하지만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하다. 4) 창조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는 이신론적(deistic) 견해에 대응하는 성경적 삼위일체 신관이다.

**2. 성자 예수의 창조적, 구속적 역할 동시 강조(골 1:14-15)**

1) 창조는 창조의 완성, 완전함과 떨어져 이해할 수 없다. 2) 신정론의 문제는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계 21:4)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 3) 성자 예수는 구속의 주(主)일 뿐 아니라 창조의 주(요 1:3)다.

**3. 눈에 보이게 되었고 육체를 갖게 된 그리스도의 성육신**

1) 성육신한 하나님은 결코 만질 수 없는 비인격적 힘이 아니라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도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2) 따라서 창조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즉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단계에서 피조물과 친밀하게 연결되었다. 3) (사변적인) 동방정교회 신학에서 강조되어 온 것처럼, 평범한 물질과 평범한 피조물이 '신격화'되거나 '신성화'될 수 있다는, 즉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롭고 완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 이른다. 4)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실재 존재 안에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참여하게"(벧후 1:4) 되는 것이다.

**4. 창조된 세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삼위일체 관점**

1) 서로 역동적 관계를 지닌 세 신적 위격을 강조하는 '삼위일체의 사회적 교리"는 교부(教父)적 사고방식을 재발견하게 한다. 2) 이 같은 관점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3) 성경의 창조 관련 본문들은 이 본문들이 찬양과 경배의 범위 밖에 있을 때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범위는 전 우주를 순수한 지적인 논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다.

Ⅱ. 자연 속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Vestigium Trinitatis)이 있는가?(자연과 이성과 자연과학)

**1) 유비적 실마리 찾기**

(1) 인간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다. 육체라는 제한적 조건 속에서 인간은 초월적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할 뿐이다. 계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그런데 그 인식이란 주로 유비(analogia)를 통해 전해진다. 초월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그 흔적이 피조세계 속에 구현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롬 1:20).

(3) 토마스 아퀴나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원인이기에 그 결과로서 창조 질서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유사성"(similitudo)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4) 따라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도 자연 계시 안에서 우리 인류에게 당연히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 삼위일체의 흔적에 대한 신학자들의 관심**

(1) 어거스틴은 이 희망을 가진 대표적인 신학자였다. 어거스틴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이성을 만드시고 이성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다.

(2)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분이다. 그리고 그가 만든 자연은 정교하다. 자연을 대충 만드셨을 리가 없다. 자연 계시라고 불충분하게 주었을 리가 없다.

(3) 따라서 자연 계시 안에는 삼위일체의 흔적조차 정밀하게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쪽에 있다. 사람의 지성과 추론 능력은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크게 다르다.

(4) 논리적 추론으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스티븐 에반스(C. Stephen Evans)는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성은 당연히 복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5) 하지만 이성이 복음의 방해물인 것은 아니다. 이성은 복음의 조력자이다. 이성을 완전히 무시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이성은 다만 충분하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고 버려서는 안 된다.

(6) 이성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과 상식이 무시된 곳에 복음의 장애물이 나타난다. 상식을 무시한 곳에 나타나는 성경 이외의 새로운 직통 계시의 출현이 그것이다. 부족함에도 우리 인간은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

**3) 자연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흔적'(Vestigium Trinitatis)**

(1) 개혁 사상의 어거스틴은 복음을 결코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 어거스틴이 볼 때 이성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이 내리신 선하신 도구였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천착(穿鑿)한다.

(3)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분명 세상에는 신적 흔적(痕迹)이 계시되고 남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도구로서의 자연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흔적'(Vestigium Trinitatis) 찾기로 나아간다.

(4) 물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우매한 시도로 여기는 반론이 늘 있었다.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늘 그 선봉에 있었다. 바르트는 자연과 은총을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종류의 자연신학도 단호히 거부한다. 과학은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늘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면 자연과학자들이야말로 먼저 삼위일체의 진리를 자연 속에서 깨닫고 복음으로 나왔을 것이다.

(5) 이렇듯 자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성경에서 찾는 삼위일체의 논증에 비해 완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analogy)와 흔적 연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의 대가인 어거스틴도 솔직히 인정한다.

(6) 그러나 유비와 흔적을 찾는 작업은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인 인간의 제한 아래서 인간에게 여전히 많은 유익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유비적인 논법에 의미가 부여된다. 죽음을 향해 가는 피조물에게 완전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7) 터툴리안(Tertullianus, 163-225)은 삼위일체의 삼위를 '뿌리· 나무줄기· 열매'의 관계로 묘사하거나 '샘· 시내· 강'으로 묘사하거나 '태양·광선·광선의 종착점'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이것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받은 계시라 했다.

(8)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름(Anselm, 1033-1109)은 나일강에 있는 '샘, 시내, 호수'의 존재와 상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를 비유했다. 샘은 시내가 아니고, 시내는 호수가 아니며, 호수는 시내가 아니지만 세 나일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나일강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샘, 시내, 호수는 각각 그 자체로써 나일강이라는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샘을 시내로부터나 호수로부터 꺼낼 수 없는 것 같이 시내는 호수로부터 꺼낼 수 없고, 호수를 샘과 시내로부터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9) 마르틴 루터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계시가 나타나 있고 또 볼 수 있다. 피조물들의 자연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고, 그것들의 형태는 아들의 지혜를 보여주고, 그것들의 유용성과 능력은 성령의 표식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속에, 비록 가장 작은 풀잎이나 양귀비의 씨 속에도 현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자연에서의 삼위일체 흔적을 말했다.

**4) 어거스틴의 관점**

(1) 어거스틴은 그의 책 "삼위일체"의 제8권 이후에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다.

(2) 먼저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문제를 푸는데 있어 지켜야 할 중요한 전제와 원칙이 있음을 밝힌다. 그 중 흔적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발췌하여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 안에서는 한 위격보다 세 위격이 더 크지 않다는 것을 이성에 의해서 밝힌다.

②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이신가를 이해하려면 모든 물체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③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 믿음으로 그를 알아야 한다.

(3) 어거스틴은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그의 "삼위일체" 15권 2절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찾아야 한다. 삼위일체의 흔적을 피조물에서 찾는 것은 무익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사랑하는 이 '와 '사랑받는 대상' 과 '사랑'이라는 삼위일체인 것이다"(제 8권). 또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마음'과 '마음이 그 자체를 아는 그 지식'과 '마음이 자체와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셋이 동등하며 한 본질이다"(9권). 더 나아가서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는 더욱 명백한 삼위일체이다"(제 10권). 그리고 "외면적 인간에게서도 '보이는 물체와' '보는 사람의 눈에 인상으로 박히는 그 형태'와 '이 둘을 결부하는 의지의 목적,' 이 셋으로 되는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제 11권)

**5)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 삼위일체 흔적**

(1) 어거스틴은 자아 안에 있는 세 가지 형태인 존재와 지식과 의욕(esse, nosse, velle)을 가지고 삼위일체적 흔적을 말한다.

(2) 나는 존재하며 그것을 알고 의욕을 가진다.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의 삶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한다.

(3) 어거스틴에 의하면 마음과 지식과 사랑(mens, notitia, amor)도 삼위일체의 흔적이다. 마음이 그 자체를 알아야 하며,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지식 행동에서 사랑을 중요시한 것은 플라톤이었으나, 어거스틴도 지식과 사랑을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것으로 생각한다.

(5)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 요한 서신으로부터 이들 생각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어거스틴은 이 사랑이야말로 삼위일체의 지식에 도달하는 길이라 볼 정도였다.

(6) 지식은 복음주의를 말할 때 거부되지 않는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기억과 지식, 의지(memoria, intelligentia, voluntas)도 "흔적"이다. 어거스틴은 지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보았다. 그 지각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진리와 선을 알게 된다. 동시에 영혼은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게 되며 그 결과 자체도 알게 된다. 그것은 이성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성은 주로 추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지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사유하는 기능을 말하는 인식과도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사유의 근원이며, 따라서 사유적 지식을 넘어서 있다. 이와 같이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ia)는 무의식 중의 명상과 직관적 비전을 의미한다.

(7) 중세기 초에는 주관적인 종교적 의식의 현상에 관심들이 많았다. '인식, 고찰, 명상,' '신앙, 이성, 명상' 또는 신비주의의 '정화, 조명, 직관'이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6) 여전히 제한적인 자연과학으로 삼위일체를 논증하려는 시도**

(1) 삼위일체는 교회사 속 성령의 사람들이 찾아낸 분명한 성경적 진리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논증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3)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기에 제한 속에서 진리의 작은 부스러기를 찾는 작업은 가능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자연과학이 정교하기는 하나 창조주 삼위일체를 증거하는데는 부족한 도구임을 피조물인 인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5) 즉, 물리적 도구인 내재의 자연과학으로 초월의 창조주 삼위일체를 논증하는 것은 실체적 한계가 분명 있다고 볼 수 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삠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 대체 불가한 질문력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 말할 수 있다. 성경은 각 개인을 위한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누구든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마 11:12)라는 말이 있다. 내 개인 경험상 천국뿐 아니라 성경도 침노한 자의 것이더라. 계속해서 침노하고 또 침노해야 한다.

그 침노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오늘날 신앙의 세계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제나 '깊은 질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늘 질문하는 자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열어 주셨고,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만큼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셨다. 따라서 AI 시대일수록,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요구하는 책이다. 예수님의 비유도, 기적도, 구약의 사건들도 단순히 외워두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방식일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의미가 열리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깊이는 '질문의 깊이'에 비례한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단순한 사실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발견한다.

예를 들어 보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철도 아닌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이 질문 없이 본문을 읽으면 버틀란드 러셀처럼 "시장하신 예수님이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셔서 열매의 철도 되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런 자가 어찌 메시아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면 관점이 달라진다. 예수님의 초점은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음에 있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함'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음에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외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려 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오랜 질문 끝에 본문이 상징하는 영적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함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왜 예수님은 빈 포도주 통이 아니라 마실 물을 넣는 통이 아닌 결례통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그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한 도구라면 포도주 통을 사용하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의 정결례에 쓰던 돌항아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낡은 종교 체계에서 새 은혜로 옮겨가는(대체하는) 상징적 선언'임이 드러난다. 결례통은 율법의 정결을 상징하고, 그곳에 부어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체'의 의미를 던지기 위해선 떨어진 포도주 통에다 물을 부으라 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또한 깊은 사색의 결과로 낳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드러난 의미였다.

이처럼 차별화된 질문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다. AI로 인해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지식의 깊이는 여전히 질문하는 자에게만 열린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은 결국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출애굽기 2장에는 3개월 숨겨온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 얘기가 나온다. 그 본문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미리암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사사기 11장에는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가 원문에 없는데, 어째서 대부분이 그녀가 번제물로 태워 죽임당했다고들 말하는 것인가?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건네신 대화의 책'이다.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분과의 대화를 위해서라도 자꾸 물어야 한다. 질문이 없다면 대화는 멈추고, 지식은 늘지 않고, 성장은 정체된다. 그러나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깊은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깊이 숨어 있는 진미를 드러내며 우리를 성숙으로 이끈다.

AI 시대에도, 아니 오히려 AI 시대이기 때문에, '질문력'은 신앙인의 필수 능력이다.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질문은 꼼꼼하고 세밀하고 수준 높게 질문하는 자만이 얻는다.

결국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설집이나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 속에서 숨은 뜻을 찾고자 하는 치열한 질문력이다.

질문하는 신앙이야 말로 살아 있는 신앙이며, 질문하는 성도가 결국 깊이 있는 성도로 자라난다.

AI가 지식을 대신 정리해 주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정직하게, 더 열렬하게 물어야 한다. "주님,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이 질문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에도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놓치지 말라.

#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

김정호 목사
미국 후러싱 제일교회



대강절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인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계절입니다. 노인아파트 현관에 누구를 기다리는 어른들에게 물으면 얼굴에 기쁨 가득해서 아들이 온다 손주들이 온다 신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나 한 달 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다는 전화를 받고는 그 순간부터 아파트 현관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좀 멀리 이사 간 손자가 기차타고 온다고 하면 기차 오는 시간 미리 나가 땅에 무릎을 꿇고 기다립니다. 그러고 있으면 손자가 달려와서 내 목을 붙잡고 어깨에 올라탑니다. 그러다가 안 온다고 전화를 하면 실망이 커서 안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아내가 밉고 심통이 납니다.

아버지 유산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다는 예수님 탕자의 비유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이 곧 멀리 사는 아이들 온다고 할 때 기다리는 제 마음입니다.

천국 가신 지 벌써 20여 년 지났는데 옛날 애틀랜타에서 목회하신 고 박성용 목사님이 목사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미자씨의 '동백 아가씨' 노래를 부르시더니 나간 교인 기다리다가 울다 지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헤일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가신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엊그제 오하이오에 사는 둘째 딸이 운전을 하고 온다고 하는데 중서부에 폭설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있고 아침에 떠나지 않고 일 다 마치고 저녁에 떠난다니 별 걱정을 다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하는데 항상 운전해서 오고 일찍 떠나라는데 늦게 떠나는 아비 말을 귓전으로도 듣지 않는 딸이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어제 낮에 전화를 하기에 번개같이 내려가서 짐 들어주고는 뺨에 뽀뽀해주고 "I love you" 했습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계절입니다. 말 잘 듣고 착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부모는 말 잘 안 듣고 고생 고생하는 자식들이 때로 더 살갑고 애틋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중고등부 견신례 교육을 마친 아이들과 만납니다. '견신례'는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교인이 되는 '입교'를 위해 준비하는 학습입니다. 견신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축복받은 것입니다. 견신례는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인 'Bar Mizvah'(말씀의 아들)와 'Bat Mizvah'(말씀의 딸) 예식과 같습니다. '바 미츠바'를 하는 날 아이는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아버지는 "이제 내 아들은 하나님 말씀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예식입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대강절)과 종말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의 재림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어둠과 억압이 가득 찬 유대 땅에 소망, 사랑, 평화와 기쁨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세상 종말이 오고 하나님 새역사의 도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에 우리 심령 중심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 나를 비우고, 죄를 사모하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진정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이창민 목사
시온연합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정겹게 나누는 점심 친교가 끝나갈 무렵이면, 교회 마당에 있는 패티오는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들의 '기사 대기실'로 변합니다. 친교실에서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여자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담소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 가자고 재촉할 수도 없는 남편들이 패티오 테이블에 둘러앉아 아내가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기다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대기실은 만석이었습니다. 저도 그 곁을 지나가다 빈자리에 살짝 걸터앉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공간에서는 이야기의 주제가 한국과 미국을 넘어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건강과 생활 정보까지, 누군가 작은 화두를 던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여성 교우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간단한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다 보니 자동차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진 분이 많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내년 초 적당한 날을 정해 이 사역을 기쁘게 시작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곧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성도 한 분이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서독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건설 현장을 지킨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그들이야말로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미국에 와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우리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10여 명의 남자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 와서 성실과 인내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한 분 한 분이 모두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저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 봐야 고작 백 달러짜리 지폐 몇 장과 이민 가방 몇 개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 아이들 공부시키고, 일터를 마련하고, 집을 장만하고, 자동차도 몇 번씩 바꿔 타면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민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쉽지 않은 이민자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감당하고, 기도로 견뎌내며 오늘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으로 새해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내 생애 최초의 연극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매년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 아끼던 시집에 껴놓은 가을 낙엽을 찾듯이 인생에 잊지 못할 낭만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마 평생 교회에서 자라왔고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더욱 이 계절에 주시는 추억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 연극에 발탁되어 요셉의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기억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저의 생애에 유일한 연극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던지라, 안경에 솜을 달아 마치 고드름이 달린 것처럼 추위에 떨듯이 대사를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침 제 이름의 뜻이 '한국의 요셉'인지라(물론 제 이름의 요셉은 구약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아버지'(earthly father) 요셉의 역할을 쉽게 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꼭 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아이를 밴 임신한 여자를 지켜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자기의 씨가 아닌 아기를 임신한 여자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유대인의 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혼을 할 뿐 아니라 치욕적인 불명예를 입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 선택은 참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마 1:19). 피해 의식 속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생명과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스캔들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셉 선택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에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조연들이 많습니다.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선물 담는 양말, 징글벨, 반짝거리는 백화점 장식 등…. 그러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응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인물, 요셉이 아니었다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뚫고 들어오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의도적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뜻의 이름, 예수… 그 이름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짓도록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한 요셉은 잊혀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잊혀진 요셉과 같은 은혜의 손길이 없었는지 잠시 뒤돌아보며,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은 신선한 크리스마스 무대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기다림



이상기 목사
미주 평강교회 원로

멀게만 느껴졌었던 역사적인 격동의 2025년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세계는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처럼 시간(역사)이라는 기차는 어떤 것에도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언제나 시간의 교차로에 다가가면 죄악 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백 차례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 기쁨의 성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불확실한 미래, 심각한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향하여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며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시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알고 믿기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늘 심각한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어둠의 깊은 염려와 근심의 짙은 구름이 강한 햇빛에 사라짐 같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왜 인생이 예수를 만나야만 하나요?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한 번뿐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내가 당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당한 사건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시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자는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에 빛 되신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자는 넘어짐이 없습니다.

마 28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까? 언제 함께하십니까?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함께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2026년 새해에도 동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장중에 2026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10-5169-8291
광고문의 010-5169-8291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社 說

# 역사의 진실 앞에 다가가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초기에 공비 토벌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념 역사 논쟁이 다시 발발할 조짐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는 진보 진영과 제주 4·3단체 등의 잇따른 비판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에서 4.3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만인 1948년 5월 9연대장으로 현지에 부임해 공비 토벌을 지휘하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부하에 의해 피살된 인물이다.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2'에서 새롭게 조명해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선 박 대령을 4.3 양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 인물을 국가가 유공자로 지정한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다.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 또한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국가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땐 신중한 판단과 함께 충분한 근거와 사유가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 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의 각기 다른 해석은 불행했던 과거가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보수 진영은 제주 4.3사건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대령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다 공산당에 희생된 숨은 영웅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2'가 주목을 받은 것도 박 대령이란 인물에 대해 가려진 역사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이 남로당이 5·10 선거와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폭동이 발단임을 설명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동을 진압하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부하의 총탄에 희생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박 대령이 4.3 사건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의 주범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등이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2'에서 박 대령을 영웅으로 묘사하자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인 행위라며 반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박 대령의 행적은 학계에서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박 대령이 4·3사건이 발발한 초기에 부임해 한달여 만에 피살됐고, 그가 피살된 뒤인 10월 이후에 많은 양민 희생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박 대령을 양민 학살의 주범으로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란 게 통념이다.

'4·3 보고서'에 실려 있는 남로당의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박 대령 부임 나흘 뒤인 5월 10일 '대내 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 이하 반동 장교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씌어있다. 남로당 세력이 박 대령 부임 직후부터 테러를 획책했고 그후 남로당 세포인 문상길 중위의 지휘로 박진경 대령이 암살당한 점으로 보아 남로당이 4.3 배후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알 수 있다.

반면에 박 대령에 대해선 "민간인 탄압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소대장이던 채명신 전 주베트남 한국군사령관도 "박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다. 폭도들에 대한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에 작전의 중심을 뒀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런 증언들은 노무현 정부 때 나온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실려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이 공산당 토벌을 목적으로 제주에 부임해 남로당 지령에 의해 암살당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남로당 공비를 토벌하다 희생된 그에게 국가가 1950년에 무공훈장을 추서했고, 그걸 근거로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으니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과 4.3단체 등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건 국가의 결정을 번복하는 데 따른 논란과 함께 4.3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그간의 노력마저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곧 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라는 명령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지시를 받은 관계 부처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게 문제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마자 국방부가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 서훈에 대한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이어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지정 재검토에 나선 걸 보면 알 수 있다.

진보 진영과 일부 단체 회원들 사이에선 박 대령을 암살한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가 박 대령을 암살한 남로당 뽀락치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하는 일이 실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국가의 결정이 번복된다면 역사적 진실마저 진영논리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매우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4.3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금은 고증과 검증으로 진실에 다가갈 때지 국가가 섣부른 판단으로 단죄할 때가 아니다. 4·3 희생자가 국가 폭력의 희생자라면 당시 국가의 명령으로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경찰들 또한 혼란한 시대가 만들어낸 피해자가 아닌가. 우리가 할 일은 이념의 편 가르기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부단한 노력이다.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기울어진 인식으로 역사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 이천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참여자 2339명 모집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이 이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이천시니어클럽(관장 조성하)은 이천시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2026년 이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천시니어클럽은 내년도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총 233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집중모집기간'동안 많은 어르신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성황리에 접수를 마쳤다.

이천시니어클럽 측은 집중모집 기간은 종료됐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 접수를 진행하여 2026년도 사업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6년에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9개의 신규 사업단을 새롭게 창출하며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공익활동사업 '노인동심학교'가 눈에 띈다. 경로당과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공연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이천시청미노인복지관, 러브락문화예술평생교육원과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전문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인 ▲역량활용사업 '국민편의지원' 사업을 통해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시니어 연금가이드, 시니어 푸드뱅크매니저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했다. 아울러 ▲'장애인서비스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을 돕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향후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할 예정이다.

이천시니어클럽 조성하 관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숙련된 경험이 이천시 곳곳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관한 자세한 문의 및 접수는 이천시니어클럽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문의처: 이천시니어클럽 : 031-633-2034). 이루리 기자



이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이천시니어클럽 제공

#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최소성취보장제, 책임교육 취지와 괴리"

## 국교위 최종 결정 앞두고 권고안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18일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공동 권고안을 제출했다.

교원 3단체는 권고안을 통해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기초학력 보장은 고교학점제와 분리된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현행 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의 최성보는 학생의 학습 회복을 지원하기보다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교사에게는 과도한 행정과 책임 부담이 전가되고, 학생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보충지도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성보가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며, 학생이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학습 포기와 학교 이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 3단체는 기초학력 책임은 초등 단계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지역 기반 전문 지원과 충분한 인력·예산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전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성보 폐지 요구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을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현장의 요구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교위에 형식적인 절충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차희 기자

# 노동부, 국민 100만 명 AI 역량 제고 추진

##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향후 5년간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AI+역량 Up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AI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번 사업은 구직자, 재직자, 중장년 등 노동시장 전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AI 기초 이해부터 현업 AI 엔지니어 양성까지 단계별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AI 대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노동시장 진입기·활동기·전환기 전 생애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진입기에는 AI 기초 역량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일반 과정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해 내년 5만 6천명을 지원하고,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C) 내 AI 관련 과정 비중을 올해 33.3%에서 내년 50% 이상으로 높인다.

또한 초급 청년 개발 인력을 분야별 AI 엔지니어로 양성하기 위해 AI 시스템 개발, AI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주요 직무 중심으로 현업 엔지니어 1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생 지원금은 월 31만 6천원에서 내년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비수도권은 6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80만원으로 우대한다.

아울러 AI 훈련을 수료한 구직자를 채용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신설한다. 총 80개 기업에 대해 기업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시장 활동기에는 AI 훈련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한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AI 훈련 실시 비율은 21.2%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5.5%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AI 훈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내년 '중소기업 AI 훈련 확산센터' 10개소를 신설해 기업의 훈련 수요와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2026년까지 2천 개 중소기업에 AI 훈련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의 AI 전환 수준을 초급·중급·고급으로 진단해 맞춤형 훈련도 연계한다. 초급 단계 기업에는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재직자 대상 AI 온라인 교육 시 기업 자부담을 면제해 총 10만명의 재직자 훈련을 지원한다. 중급 단계 기업의 경우 민간 AI 훈련과정 참여 시 수강료의 90%(비수도권 95%)를 지원하며, 고급 단계 기업에는 사내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외부 전문가 수당 등을 지원한다.

노동시장 전환기에 있는 중장년과 이직·전직 희망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40대 이상 중장년의 생애경력설계를 지원하며 AI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한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중장년과 경력보유여성 등을 대상으로 AI 기초역량 교과를 운영하고, 이직·전직 준비자와 구직자를 위한 산업·직종별 AI 솔루션 활용 훈련도 신설한다. 해당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1천 명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AI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 등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로 신규 지정해 총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내 유사 산업 중소기업까지 AI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루리 기자

# 경기도, 사이버 괴롭힘·딥페이크 대응 청소년 교육 강화

경기도는 청소년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탑재했다.

이번 콘텐츠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작됐으며,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10개 과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숏폼 영상 100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주제로 삼아,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영상은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와 도준우 PD가 진행을 맡았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개그우먼, 인공지능(AI) 연구원, 뇌과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N번방 사건', '사이버 괴롭힘',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도박', 'SNS 기반 범죄', '보이스피싱' 등 청소년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디지털 범죄 유형과 예방·대응 방법이다. 추상적인 이론 설명을 지양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와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청소년의 시각에서 디지털 범죄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함께 담아 가정 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교육 영상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누리집(gseek.kr)을 통해 제공되며, 숏폼 콘텐츠 100편은 지식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 및 지식(GSEEK) 이용 관련 문의는 학습지원센터(1600-0999)로 하면 된다. 서다은 기자



홈페이지 www.cplace.co.kr 전화번호 02-6052-6791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 심리적 상담 치유
##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 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2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2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 경기 예술 신학원 학생모집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모집을 목적에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철학박사**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 싸르뜨르작, 이강렬 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 세익스피어 작, 오셀료 출연등

| | |
|---|---|
| 학 과 | 연극선교학과 |
| 지원자격 | 고졸이상학력 |
| 종 교 | 기독교세례자 |
| 모집인원 | 약간명 |
| 원서지원 | 25년 1월부터 |
| 개강및수업 | 수시모집 |
| 학 제 | 4년 |

토요일만 집중 수업 졸업 후 목회자가 되기를 하면 개혁신학교 신학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복음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 사랑의교회 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MGBC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 지 역 | 일 시 | 장 소 | 대표연락처 |
|---|---|---|---|
| 대 전 | 25.12.12(금)-13(토) |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에목사)<br>주소 :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 강성은 목사<br>010.2211.7139 |
| 서울<br>경인<br>강원 | 26.01.19(월)-20(화) | 인천 검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br>주소:인천 서구 완정로188번 2길 12 | 이수화 목사<br>010.9407.7226 |
| 부산<br>울산<br>경산 | 26.01.22(목)-23(금) |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br>주소:부산 사하구 윤공단로14번길 62(다대동) | 김양덕 목사<br>010.9155.0191 |
| 서부지역 | 26.01.26(월)-27(화) | 태안 에일교회(담임 김순남목사)<br>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 김순남 목사<br>010.6477.2827 |
| 충북<br>청주 | 26.01.30(금)-31(토) | 청주총신교회(담임 염광섭목사)<br>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 염광섭 목사<br>010.4410.9115 |
| 전북<br>광주 | 26.03.05(목)-06(금) |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br>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31 | 양정옥 목사<br>010.6542.2661 |
| 제주 | 26.03.20(금)-21(토) | 제주 글로리아교회(담임 김흥석목사)<br>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 이승우 목사<br>010.9969.6875 |
| 천안<br>충남<br>경기 | 26.04.13(월)-14(화) |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br>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 박진우 목사<br>010.6314.3783 |

| | | |
|---|---|---|
| 강사소개 | 양정옥 목사 | 사)예장합동개혁총회장 / 성장교회예식법 |
| | 곽윤관 목사 | 사)예장합동개혁직전총회장 / 행복목회사역 |
| | 한영동 목사 | 사)예장합동개혁증경총회장 / 목회코칭사관학교/120명 자립교회 |
| | 정해숙 목사 | 불교인 전도1년30명 / 전도훈련 |
| | 홍지영 목사 | 영성훈련 / 부흥사 |
| | 임동호 목사 | 목회 AI활용법 / 찬양 |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 정신과의사와 함께 말씀으로 회복하기

## 신간 '나를 돌보는 마음'



상처로 인해 자신과 친밀하지 못한 신앙인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신간 〈나를 돌보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왜곡된 자아상을 회복하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전인적 치유의 여정을 담아낸 책이다.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의 공저자로 잘 알려진 김민철 전문의는 이번 신간에서 단순한 심리 치유를 넘어, 신앙과 정신의학을 통합한 관점에서 회복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다움'이 무엇인지 묻고,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사랑의 초대를 건넨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왜 나와 친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아 형성을 방해하는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살핀다. 2부에서는 상처와 죄, 왜곡된 정체성을 직면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 깊숙이 자리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안내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개인적 회복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치유되고, 건강한 자아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이 자아를 강화하거나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회복의 최종 목적은 '더 행복한 나'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회복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회복의 완성이며, 나다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준비라는 신학적 방향성이 책 전반을 이끈다.

실천적인 구성도 눈에 띈다. 각 장마다 '마음근육 키우는 방법'이라는 전문의 조언 코너를 수록해, 독자가 일상 속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복 방법을 제시한다. 무의식, 정체성, 트라우마와 같은 다소 어려운 개념을 임상 사례와 저자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쉽게 풀어내 독자의 공감을 이끈다. 개인 묵상용은 물론, 교회 소그룹이나 회복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저자는 "하나님을 알아 갈수록 나를 알아 가게 된다"며, 신앙의 여정과 자기 이해의 여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인해 그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과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책 전반에 흐른다.

〈나를 돌보는 마음〉은 상처 입은 마음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돕는 안내서다. 온전한 회복을 꿈꾸는 이들, 신앙과 마음의 간극으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 평생 큰 은혜 입은 백세 목회자가 전하는 목회의 본질과 실존

## 신간 '목회백화'



한국 교회의 원로이자 영적 어른으로 존경받아 온 림인식 목사가 신간 〈목회백화〉를 출간했다. 백세를 맞은 저자가 평생 목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신앙적 통찰을 집대성한 이 책은, 오늘날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목회백화〉라는 제목은 '목회의 자리에서 부딪치며 체험한 백 가지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목회에 성공하는 길은 '어떻게 목회하느냐'보다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기술과 방법 중심의 목회 담론을 넘어 목회자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림인식 목사는 이 책에서 목회를 '본질'과 '실존'으로 구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받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성도들과 구령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회의 실존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에서 태어나 6·25 전쟁을 겪으며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저자는,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목회가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임을 일관되게 증언한다. 특히 "선(先) 목회 본질, 후(後) 목회 실존"이라는 원리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책은 목회자의 정체성과 영성, 교회와 성도의 관계, 순종과 겸손, 칭찬과 치리, 교회와 나라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실제 목회 현장의 사례와 함께 풀어낸다. 저자는 목회자가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목회를 직업이나 영업으로 전락시키는 태도를 경계하며, 오직 소명과 사명 의식으로 섬길 때 참된 목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림인식 목사는 목회 성공의 기준 역시 외적 성과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뢰와 존경에 있다고 강조한다.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목회의 '판정승'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신앙적 칭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에 합당한 격려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된다고 전한다.

추천사를 쓴 림인식 목사는 "한 종목만 읽어도 참 목회에 도움이 되는 목회백화"라고 평가했다. 〈목회백화〉는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목회와 교회를 이해하는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백 년의 삶과 목회에서 길어 올린 이 증언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목회의 본질을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전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교회법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재인증

## 2025년 평가서 최고등급 유지… 향후 6년간 등재지 지위 확정

사단법인 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 「교회와 법(The Journal of Church and Law)」이 2025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등재지'로 재인증을 받았다.



「교회와 법」은 2014년 창간된 이후 2025년 8월까지 제12-1호를 발간했다. 2023년 '등재지'로 승격된 뒤 3년 만에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6년간 '등재지'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서헌제 학회장은 이번 재인증과 관련해 "이제까지 학회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소강석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수한 연구 활동을 계속한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적으로 학술지 기획과 편집에 임하신 편집위원장과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부족한 학회를 장중에 붙드시고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해주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법학회는 '법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선한 사역에 더욱 매진하고 그 열매를 「교회와 법」에 담겠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전보다 더 놀라운 분으로 여기며 더 깊이 찬양하게 되었다면, 이는 우리가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은 증거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경험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라면 반드시 나 자신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인생의 불행한 일 중 90퍼센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는 차라리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다음 날 새벽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좋은 상태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선택하십시오. 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일어난 영적 체험이 무엇인지 '감지'해야 하고, 그다음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이라면 배척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재상 '영적분별을 살다'



주님 앞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어려움과 약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제 소망과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지심에 빠져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미루고 주저합니다. 게으름 때문이며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를 기다려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것을 주저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께 이야기할 수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선 느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외로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관계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어 공허함이 더욱 짙게 느껴집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지독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이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시편 기자와 같이 간절하게 토해 내는 저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덕원 '인생 기도 119'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요 15: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안전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과 순종의 결실이에요. 말씀에 따라 살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자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건물과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시대를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참된 신자들이 연결된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최선 '절망의 끝자락에서'




매일묵상

#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4:13]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랄 만큼 쏙 빼닮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아주 아름답고 웅변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삶은 바로 그 백성들의 언행 속에 쓰여져 있는 살아 있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찌나 쏙 빼닮았는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글쎄, 좀 닮긴 닮은 것 같은데"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 그래서 예수를 아주 많이 닮았어. 나사렛의 그 거룩한 인자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지. 저 사람은 그 생활과 매일매일의 행동 속에서 예수의 사상을 실천하고 있어"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이 절대 여러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용감하십시오.

사랑하는 정신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말하며, 친절하게 행동하십시오. 거룩함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되 항상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헌신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도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주님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오래 참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원수를 용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말씀이 항상 여러분 귀에 울리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에게 친절히 대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되십시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여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찰스 스펄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새롭게 하소서

# 기독교 교회사 (12)

### 2. 성경의 증거

성경은 현존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출발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자존-自存)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자체가 곧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 하에 (창 1:26)을 기독교 설립의 시작과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며 증거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신적 작정하신 목적을 기독교 설립의 목적과 같은 차원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에덴 동산 창설을 기독교의 창설로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에덴 교회를 창설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교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창 2:8-14).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이며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흘러 갈라진 네 개의 강은 에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동서남북 사방 곧 세계로 확산되는 하나님의 기독교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2장 교회 설립의 목적

기독교 역사 학자들 및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본질과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한 것'이라고 정립하였습니다. '주후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한 각종 신앙고백서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기독교 각 교파의 헌법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독교 설립 목적에 대한 신학적 정립입니다.

한편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사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류의 구속사와 연관됩니다. 기독교는 창세로부터 예정된 것이지만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결정하심에 따라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인류 구원 문제로 인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여 기독교의 본질과 설립 목적을 인류 구령 사업이라고 정립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인류의 범죄와 그에 대한 구속사 차원에서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본질과 설립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인류 창조의 목적과 인류에게 부여된 사명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창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그리고 인류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이와 같은 성경의 증거를 근거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류 세계에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는' 조직 사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류 세계에 기독교가 수립되지 않았을 것이며 어떤 조직 사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들은 범죄하지 않은 인류 사회에 조직 사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인류 사회는 소수로 구성된 개인 사회가 아닙니다. 인류 사회는 하나님의 전 피조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이루는' 대단위적인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부여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영역은 자연 세계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 피조 세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류 사회는 아담의 범죄와 관계없이 지역과 영역에 따른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이미 천사들의 세계와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가정 사회를 통하여 입증됩니다. 천사들의 세계에는 범법 행위와 관계없이 분명한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라는 사회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당연히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체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체계',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한 체계'는 분명히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당연히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체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체계',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한 체계'와 '인류 구속을 위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구성되었다고 정립합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Romans 8:28 NIV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 in all things: 항상, 모든 경우에
- for the good of ~: ~의 선(善)을 위하여
- those who ~: ~하는 사람들
- according to: ~에 따라
- purpose: 목적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선(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79)

**로마서 14장 19절**

19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 이러므로 우리가 ~힘쓰나니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중요한 단어, 숙어**

make every effort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다. lead to ~에 이르다, 이끌다, ~의 마음을 꾀다. mutual 서로의,피차. edification 덕을 함양, 계몽, 교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고 서로를 세워 주는 일들을 따라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물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의 행동 지침이지 그리스도인이 구원도 받지 못한 세상들과 지내면서 지켜야 할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성령 안에서"라고 바울은 말씀한다.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끼리의 교제권을 의미한다.

**시편 34:14**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4 Turn from evil and do good; seek peace and pursue it.

데살로니가전서 5:11-22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11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just as in fact you are doing. 12 Now we ask you, brothers, to respect those who work hard among you, who are over you in the Lord and who admonish you. 13 Hold them in the highest regard in love because of their work.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14 And we urge you, brothers, warn those who are idle, encourage the timid, help the weak, be patient with everyone. 15 Make sure that nobody pays back wrong for wrong, but always try to be kind to each other and to everyone else. 16 Be joyful always; 17 pray continually; 18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9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20 do not treat prophecies with contempt. 21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22 Avoid every kind of evil.

**히브리서 12: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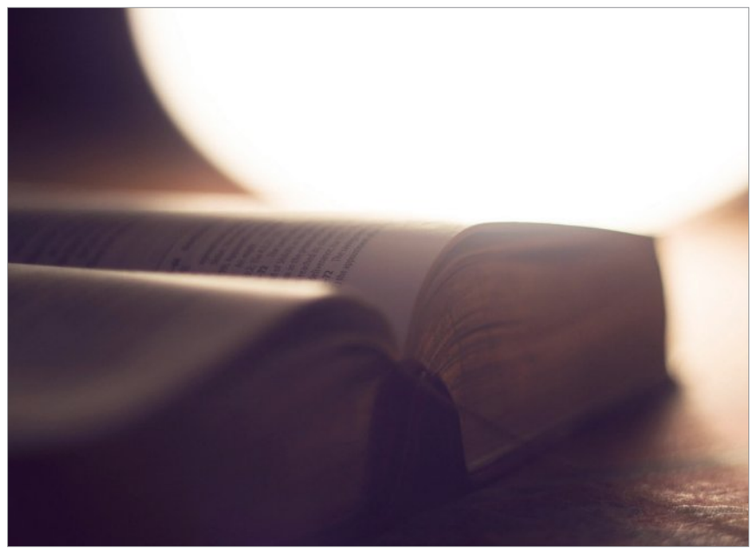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2 Therefore, strengthen your feeble arms and weak knees. 13 "Make level paths for your feet," so that the lame may not be disabled, but rather healed. 14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해석**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20절**

20.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for the sake of food. All food is



clean, but it is wrong for a man to eat anything that causes someone else to stumble.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for the sake of food : 식물을 인하여

·All food is clean : 만물이 다 정하되

·, but it is wrong : 악하니라

·for a man to eat anything that causes someone else to stumbl e: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단어, 숙어**

destory 파괴하다,무효로 만들다.

for the sake of~ =for one's sake~ : ~을 인해, ~을 위해, ~을 봐서. sake 원인, 이유, 이익, 목적, 위함. for any sake : 하여튼,

for both our sake : 우리들 쌍방을 위해,

for convenience' sak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 편의상,//convenience ;편의,편리. for God's (goodness', heaven's, mercy's) sake : 제발, 아무쪼록, 부디 ,

for your sake : 당신을 위하여.

cause someone else to stumble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하다.

cause A to B : A를 B하게 하다.

it is wrong for a man to eat anything that causes someone else to stumble

it는 가주어, for a man는 의미상의 주어, to eat anything that causes someone else to stumble는 진주어

먹는 음식 따위의 사소한 일 때문에 분쟁을 일으켜 형제를 망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먹는 음식과 같은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로 끝내고 넘어가야지 그 작은 일이 무슨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문제 삼다 보면 큰 일로 번져 부질 없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기가 쉽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느니 먹어도 상관없느니 하면서 한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켜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어라고 설명할텐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그러나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형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인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여봐란듯이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양심에 조금도 찔리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에게는 그것이 거침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충고인 것이다.

디도서 1:15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5 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but to those who are corrupted and do not believe, nothing is pure. In fact, both their minds and consciences are corrupted.

고린도전서 8:8-13

8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8 But food does not bring us near to God; we are no worse if we do not eat, and no better if we do. 9 Be careful, however, that the exercise of your freedom does not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weak. 10 For if anyone with a weak conscience sees you who have this knowledge eating in an idol's temple, won't he be emboldened to eat what has been sacrificed to idols? 11 So this weak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is destroyed by your knowledge. 12 When you sin against your brothers in this way and wound their weak conscience, you sin against Christ. 13 Therefore, if what I eat causes my brother to fall into sin, I will never eat meat again, so that I will not cause him to fall.

**▶해석**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풍성한 묵상

##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설치 않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가리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하다.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어떤 사람은 썩은 부위를 드러내놓으며 도려내달라고 의사에게 이렇게 간청한다.

"여기를 좀 깊이 자세히 살펴주세요. 그리고 제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진단해 주십시오. 상처를 내버려두지 말고 확실하게 고쳐주십시오."

이 환자와 같이 의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맡길 때 그의 치료와 회복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자유롭게 그에게 나아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 부을 때, 그에게는 진정 희망이 있다. 어떠한 사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뼈 속까지 썩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사 되신 주님께서 고칠 수 없거나 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은혜라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으므로 더욱더 희망이 있는 우리가 아니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죄와 상처를 담구어라.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돌이키라! 아무리 많고 깊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찰스 스펄전 「신자의 모든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출처: 햇볕같은이야기




BIBLE PORTAL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 히브리서 4장 12절 | 개역한글



은혜의샘물

# 대중문화의 세계관 (2)

먼저 불신자의 세계관을 살펴보겠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약 180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big bang)과 함께 갑작스럽게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우주는 매우 느리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질서와 큰 혼란의 상태로 죽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건물이 낡아 가고, 사람이 늙어 가며, 산과 해변이 침식되어 가고, 지하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현상과 같이 또 더운물이 찬물에 섞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 다시는 더운물을 되찾을 수 없는 것 같이 태양도 언젠가는 차갑게 식고 별들도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새로 짓고 물을 다시 데운다 할지라도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결코 늘지도 줄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 소모된 에너지는 흩어져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무질서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무질서가 승리하게 되어 우주는 멸망하게 된다. 이를 과학자들은 '열평형' 혹은 '열사망'(heat death)이라고 말한다. 이 이론은 빅뱅설과 열역학 법칙이 혼합되어서 나온 비관론이다. 이 비관론이 자연스럽게 우연론과 숙명론으로 발전된다.

프레드 호일(Fred Hoyle)이 제안한 우주 팽창론은 우주의 종말을 예고한 열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물질은 초기의 대폭발에 의해서 한꺼번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또는 영원히 계속되는 소폭발에 의해서 초당 약 5만 개의 별이 새로 생겨나며, 이들 별들이 은하계를 이루어 팽창으로 생겨난 공백을 메움으로써 은하계의 밀도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우연히 시작되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을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공간이나 시간도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열평형 혹은 열사망으로 예언된 우주의 죽음을 피해 보고자 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많은 과학자들은 창조를 일종의 신비라고 말한다. 물질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양의 반물질이 함께 만들어지게 되고,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언제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폭발과 함께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창조된 물질이 반물질과의 만남을 피하여 살아남아 있다는 것과 반물질은 사라지고 물질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신비 중의 신비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폭발 이론을 믿는 과학자들 중에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반물질이 없는 상태로 물질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우주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적인 질서가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주의 질서가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지만, 우주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가지고 탄생될 확률은 마치 원숭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마구잡이로 건반을 두들겨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연주할 확률보다도 훨씬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현대 과학은 마치 팽팽하게 태엽을 감긴 시계가 얼마 후 태엽이 풀리고 죽는 것 같이, 팽팽하게 고무줄이 감기어 하늘을 날던 모형 비행기가 줄이 풀리면 땅에 처박히는 것처럼 이 우주는 고도의 질서에서 출발해서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점차 고도의 질서로 옮겨간다고 말하는 진화론자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우연성에서 우주적인 질서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그들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80억 년으로 보고 태양계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본다. 그리고 이 우주가 완전하게 멸망하려면 앞으로 40억 년 내지 50억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대에는 이 우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이지만,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의 소멸과 함께 혹성들은 블랙홀들에 삼키든지, 우주적인 빙하 시대를 맞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크게 수축되면서 불덩이에 휩싸이든지 하여 죽게 된다. 천문 과학 서적인 {호라이즌}에서 마이클 시든은 이렇게 말했다. "해도 달도 별도 죽을 것이다. 은하계도 죽을 것이다. 온 우주가 죽을 것이다. 인구를 조절하고 자원을 재순환시켜도 지구상의 생명엔 끝장날 때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은 죽음이야말로 정상적인 우주의 상태이며,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이 우주는 우연과 진화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가 이제 서서히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죽음'은 그들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언어이다. 무신론자들에게 삶은 비정상이며, 우연일 뿐이며, 덧없이 스쳐 가는 찰나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과 '우연'은 불신자가 보는 세계관이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언어, 가장 빈번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언어는 '생명'이다. 죽음은 비정상이며 침입자이며 강도이다. 우주는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았다. 우주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만들고 목적을 부여한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간다. 하나님이 돌보실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간다. 비록 우주가 지금은 타락해 있고, 인간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이 우주는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죽음은 신자들이 정복할 최후의 원수일 뿐이다. 따라서 신자는 죽음 앞에서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이다(롬 5:17). 그러므로 '영생'과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오, 세계관이오, 삶의 철학이다.

그러나 불신자의 세계관은 '우연'과 '죽음'이다. 이 두 언어는 불신자의 삶을 온통 지배한다. 불교에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란 말이 있다.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다. '우연'과 '죽음'이란 언어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 인간은 언제나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라며 살아갈 것이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폐쇄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신앙은 삶의 방식이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체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간다.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기대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며, 낙심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신앙과 가정

# 행복은 당신 입니다

행복은 작습니다. 거창하고 큰 것에서 찾지 마세요. 멀리 힘들게 헤매지 마세요. 비록 작지만 항상 당신 눈앞에 있답니다. 행복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무시해 버려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답니다.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행운의 복권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가는 길은 만 갈래지만 방법은 하나랍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아는 길이 편하고 가던 길을 또 가듯이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에 배이는 향기입니다. 하나씩 날마다 더해가는 익숙함이랍니다.

행복은 투자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실을 위해 남김없이 투자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온전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답니다. 행복은 공기입니다. 때로는 바람이고 어쩌면 구름입니다. 잡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답니다.

행복은 선물입니다.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고 소리 없이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가장 달콤한 포옹이랍니다. 행복은 소망입니다. 끝없이 전달하고픈 욕망입니다. 하염없이 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결국엔 건네주는 축복입니다.

행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당신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당신입니다. 이미 당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 거짓된 기도

두 명의 유대인이 구명 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보아도 도와줄 배나 섬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만일 무사히 구조 된다면 재산의 반을 자선 사업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구원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유대인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재산의 3분의 2를 기증하겠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자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여기서 살려주시면…." 그때 다른 사나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봐, 기다려 섬이 보여. 거래 중단해." 그러자 그 유대인은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너가던 여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만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다면 1만 원을 자선함에 넣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건널 무렵 그 여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5천원 만, 아니 100원만 넣겠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놀란 여자는 큰 소리로 "농담을 했습니다. 1만 원을 넣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닷컴 제공



# 기회를 놓친 드루실라의 최후 -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


한평우 목사

폼페이(Pompeii)를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는 시대적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된다. 이유는 2천 년 전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편리함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폼페이에는 세탁소와 극장도 있었고 약국이나 경기장도 있었다. 집마다 수도관을 연결했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만들었을 정도다. 전문가에 의하면 선거 벽보도 발굴되었는데 '나를 선택하면 시민들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라는 구호까지 있었다고 하니 말이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이곳은 BC 7~8세기경에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했던 도시다. 그 후 BC 89년에 로마의 장군 술라(Sulla)에게 정복되어 로마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스 사람들이 나폴리를 지배했고 가까운 이곳 역시 그리스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 사실 나폴리라는 말은 그리스어(헬라어) 네오폴리스(신도시)라는 의미다. 그들의 후예라서 그런지 나폴리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처럼 키가 작은 공통점이 있다. 폼페이에서 멀지 않은 살레르노의 파에스툼(Paestum)도 그리스 사람들 이 BC 5세기에 세운 도시다. 거기에 있는 두 신전은 얼마나 원형이 잘 보존되었는지 아테네에 있는 신전보다 더 완벽한 모습이다. 이런 여러 면을 볼 때 항해술이 뛰어났던 그리스 사람들이 일찍이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도착하는 항구마다 그리스의 신도시를 건설한 것 같다. 그리스는 섬이 약 5천 개나 존재하기에 섬과 섬을 잇는 통로가 바닷길을 내는 방법뿐이었고 그것은 곧 항해술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폼페이를 공중에서 보면 생선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머리 즈음에 경기장을 만들어 마치 생선의 눈처럼 구성되었고 꼬리 부 분에는 치미테로(Cimitero-공동묘지)가 자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구조의 건설이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웬일인지 폼페이 멸망 전에 살다가 죽어 장사 지낸 무덤들에 관심이 간다. 역사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무리 중에는 대단했던 인물들도 있었을 테니 말이다. 우리도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동질감이 작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화산재에 묻혀 잊힌 도시였던 폼페이는 1549년 운하 공사를 하던 도메니코 폰타나(Domenico Fontana)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발견 당시 나폴리를 지배했던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발굴한 유물들을 가져갔고, 그 후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룬 1856년 경에 본격적으로 발굴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2천 년 전에 살았던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폼페이가 화산재로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장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지 두 달 만의 일이었다. 그는 유대인 여자를 불같이 사랑했지만, 황제라는 신분 때문에 원로원의 허락을 얻을 수 없자 홀로 지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야망이 세조 만큼이나 많았기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세자 교육을 하는 일에 대해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동생 도미티아누스 (Domitianus)는 황제가 되고 싶어 안달했는데 형이 2년 만에 죽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황제가 되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냥 두었다면 반란도 불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폼페이에는 성서와 관련된 인물이 있다. 사도행전 24:24 이하에 보면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나오는데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었으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고 미루는 바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흘려보내고 말았다. 그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주 불러 이야기 나누었다고 했다(행 24:25).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총독 벨릭스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드루실라가 굉장한 미녀였기 때문이다. 드루실라는 AD 39~44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아그립바 1세의 셋째 딸이자 아그립바 2세의 막내 누이로, 버니게(행 25:13)와 자매였다. 그녀는 콤바게네(Commagene)의 왕자 에피파네스(Epiphanes)와 약혼하였으나 그가 할례를 거절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파혼했다. 15세가 되던 해에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에메사(Emesa)의 왕 아지주스(Azizus)와 결혼했다. 그 후 그녀의 미모에 매혹된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와 결혼하였고, 드루실라는 그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루실라는 벨릭스와의 사이에서 아그립바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당시 폼페이는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로마인들의 별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환락이 함께한다. 남편이 유대 총독 출신이었고 평소 탐욕이 대단했던 자였기에 많은 돈을 모았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런 별장 지대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로망이었던 이곳 폼페이에 거주했다. 요즈음으로 본다면 폼페이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려한 환경과 시원하고 맑은 공기는 휴양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 불시에 재앙이 찾아왔다. AD 79년 8 월 24일 베수비오와 쌍둥이 같은 솜마 화산이 갑자기 폭발했다. 당시 폼페이에는 약 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앙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다. 놀라운 것은 이날은 폼페이 사람들이 불의 신 불칸(Vulcan)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었다. 그들은 불칸이 존재하는 두 산(베수비오와 솜마)을 열광적으로 섬겼다. 아이러니하게도 폼페이는 불을 섬기는 축제 중에 불로 망하고 만 것이다. 보통 이탈리아의 8월은 더위가 최고로 치닫는 때인데 이때 화산이 폭발했으니 뜨거운 화산재, 또는 유독가스가 뜨거운 기온을 더욱 상승시켰을 것이다. 폼페이 뒤에는 두 개의 산, 즉 베수비오(Vesuvio, 해발 1,277m)와 솜마 산이 쌍둥이처럼 있는데 불을 뿜은 것은 솜마(Somma, 해발 1,132m) 산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화산재가 12km나 떨어진 폼페이까지 어찌 날아와 이 도시를 수 미터의 두께로 덮어버렸을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역사가 아닐까 싶다. 화산으로 인해 약 2천여 명이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목숨을 잃어야 했다.

폼페이가 화산재와 가스로 멸망하는 광경을 똑똑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해군 사령관으로 마즈노곶(사도 바울이 하선했던 보디올 근처)에 있었던 대(大) 플리니우스(Plinius)였다. 그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산재가 비 오듯 쏟아져 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유독가스로 사망하고 말았다. 함께 있었던 그의 조카 소(小) 플리니우스는 당시 18세의 나이로 그 처절한 광경을 자세히 기록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영국인 불워 리튼(Edward Bulwer Lytton)이 소설 『폼페이 최후의 날』(The Last Days of Pompeii)을 쓴 바 있다.

폼페이는 아주 방탕했던 도시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을 보면 당시 이곳에는 술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들이 술에 취하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었는데,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매춘의 집'이었다. 당시에 매춘이 행해지던 집을 방문하면, 손님들의 다양한 선택을 위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봐도 얼굴이 붉어진 다. 죄의 양태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듯 싶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방탕의 길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사방을 캄캄하게 만든 검은 구름과 가스 속에서 술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처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멸망할 때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과 함께 삶을 마무리해야 했던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그녀가 외치는 날카로운 절규가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 듯하다. 이런 처참한 광경과 소리를 상상해보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면 한다.

◈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35년째 시무하시고,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마태복음 10:2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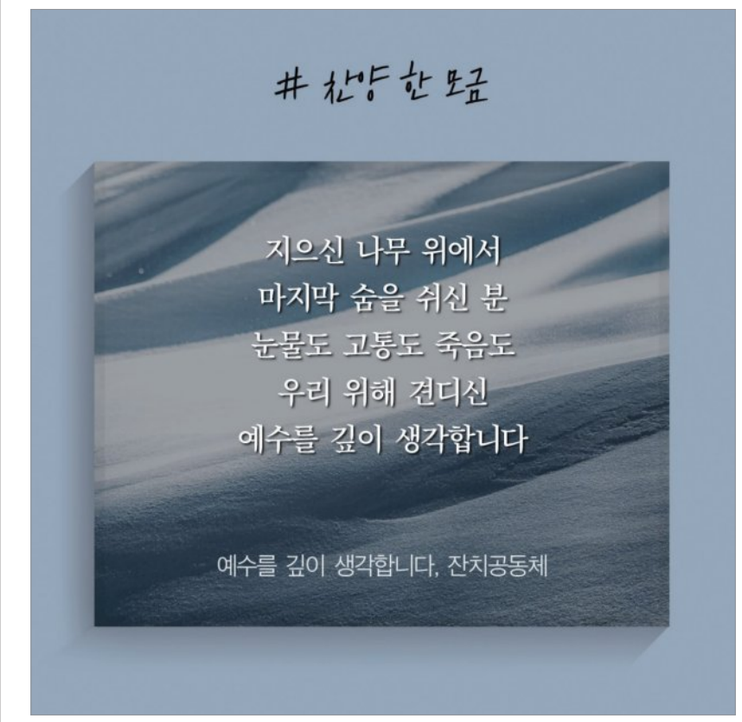
Maggie Muzorewa는 70년대 중반에 Scarritt College에서 사귄 귀한 친구들 중 한 명이다. 그녀의 남편은 Muzorewa 주교인데, 지금은 짐바브웨인 로디지아의 임시 총리였다. 그 주교는 기독교인의 사명을 첫째로 두고 있었고 정치는 그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강한 신념으로 인해 그는 한 번 이상 체포되어 신앙 때문에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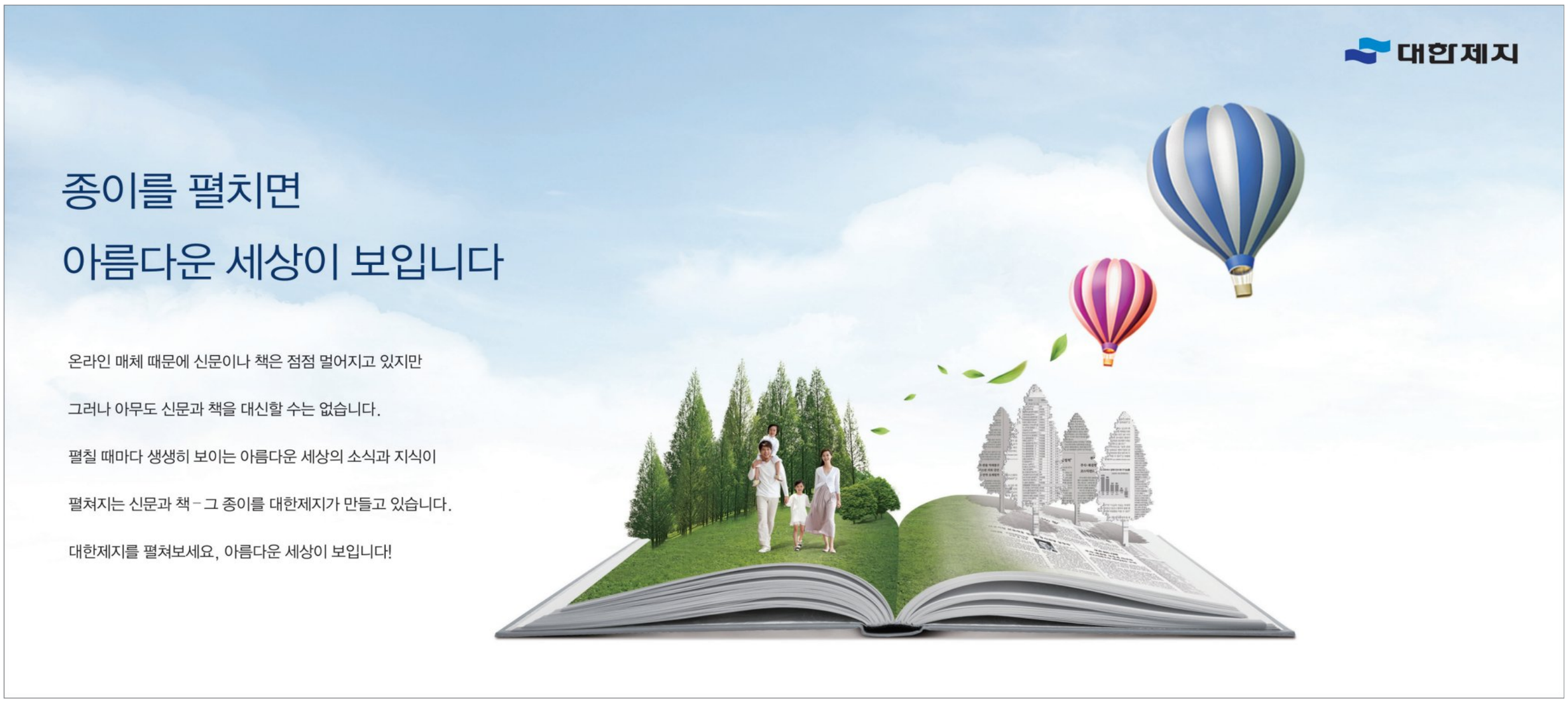
우리가 그와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석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했는지 우리와 공유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신앙 때문에 결국 순교했고, 그 이후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꺼이 고통을 겪었다.

다행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배척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쉽다. 겉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침묵함으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세를 취한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많은 잘못이 일어나고 있으며, 혼자서 이러한 문제에 맞서는 것이 어렵다면 서로 의지하여 지원과 격려를 받고 사회의 악에 맞서 주님을 위해 선포하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라.

**[기도]**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또한 항상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enevieve and Hermon DeHoog
크리스챤 교육과 교회음악 등 교회의 여러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Genevieve는 지역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들은 Georgia 주의 Sugar Valley 에서 종교수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가짜 찬양단이 전하는 진짜 위로… '신의 악단' 연말 극장가 출격

북한 소재 최초의 음악영화,
웃음과 울림을 동시에
'종교의 자유' 없는 북한서
급조된 찬양단 설정 눈길

'아빠는 딸' 김형협 감독,
'7번방의 선물' 김황성 작가
목회자 시사회서
"잘 만든 기독교 영화" 호평





영화 '신의악단' 스틸컷 ©스튜디오로켓




북한 보위부가 만든 '가짜 찬양단'이 진짜 위로와 감동을 전한다. 영화 '신의 악단'(감독 김형협)이 오는 12월 31일 개봉해 연말 극장가를 찾는다.

'신의 악단'은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길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 지원을 받기 위해 벌이는 기막힌 작전에서 출발한다. 보위부 장군은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 북한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급조하고, 각기 다른 사연과 목적을 지닌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화는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지만, 단순한 웃음에 그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거짓을 연기해야 했던 인물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가장 폐쇄적인 곳에서 '자유'와 '사람다움'을 갈망하는 과정을 담았다.

영화 '아빠는 딸' 등 휴먼 영화를 선보여온 김형협 감독은 "'신의 악단'은 서로 다른 이념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며 "웃음 속에 사람과 휴머니즘이 흐르는 작품이 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각본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집필한 김황성 작가가 맡아 서사의 밀도를 더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배우 박시후가 약 15년 만에 극장가에 복귀하는 작품으로도 관심을 모은다. 박시후는 가짜 찬양단 창설을 이끄는 북한 보위부 장교 '박교순' 역을 맡아, 냉혹함과 인간적 균열을 동시에 지닌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여기에 2PM 출신 정진운을 비롯한 태항호, 서동원, 장지건, 최선자 등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이 합류해 극에 활력을 더한다.

영화는 몽골 로케이션을 중심으로 촬영됐다. 제작진에 따르면 촬영 당시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이어졌지만, 배우와 스태프들은 한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 김 감독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 영화가 더 단단해졌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최근 열린 목회자 대상 시사회에서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코믹한 설정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과 인물들의 선택 앞에서는 깊은 공감을 보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선 목사는 "가짜를 진짜로 바꾸시는 복음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영화는 러닝타임 110분, 15세 이상 관람가이며, 연말연초 가족 단위 관객은 물론, 웃음과 감동을 함께 찾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백선영 기자

# 청년들이 만드는 건강한 크리스마스, 오륜교회 '더라이트' 열린다

김기리 MC·양동근 등 출연…
시각장애인 위한 나눔 예배



지난 2024 '더라이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륜교회청년국




오륜교회(담임 주경훈 목사) 청년국이 성탄절을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눔 예배 '2025 더라이트(The Light)'를 연다. 행사는 오는 12월 23일 오후 8시, 오륜교회 2층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더라이트'는 예배와 공연, 모금을 결합한 크리스마스 나눔 행사로,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해 왔다. 이번 '더라이트' 티켓 수익금 전액은 시각장애인용 도서제작에 사용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형식 속에 성탄의 의미와 이웃 사랑을 담아내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그맨 김기리가 메인 MC를 맡아 진행되며, 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된 하트브라스앙상블을 비롯해, 양동근(YDG), DJ 렉스(DJ Wreckx), 이철규, 부부 찬양사역팀 달빛마을, 오륜교회 램넌트워십과 램넌트콰이어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티켓은 오륜교회 1층 로비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더라이트'는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교회 내에서 만들어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2022년부터 기획됐다.

백선영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간 | CTS 기독교TV | Good TV | CGN TV | CBS TV | Cchannel |
|---|---|---|---|---|---|---|
| 오전 | 5:00 | 00 TV새벽예배 일산광림교회<br>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br>30 365 새벽기도 | 00 생명의 삶<br>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 00 TV강단 연동(김주용)<br>30 TV강단 한마음(김승룡) |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
| | 6:00 |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예원-정은주<br>30 생명의 말씀 청운-이필산 | 20 힐링스토리<br>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br>40 GOODTV 오늘의 기도<br>50 GOODTV 뉴스 |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13회)<br>5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392회) |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br>30 새에덴의 언약 (소강석)(917회) |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br>40 노변담화(985회)<br>50 리바이즈 워십 |
| | 7:00 | 00 CTS뉴스<br>20 생명의 말씀 한국중앙-임석순<br>50 생명의 말씀 용인비전-신용수 | 10 신의 2수<br>20 행복한 쉼터 LA새생명비전(강준민)<br>50 행복한 쉼터 왕성 (길요나) | 30 휴먼네컷(57회) |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18회)<br>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87회) | 00 포도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문훈 목사 |
| | 8:00 | 2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13회) | 2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br>40 다큐 더 로드 |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155회) | 00 하나님의 음성(112회)<br>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400회) 출애굽기 39강 |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br>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
| | 9:00 | 20 더 메시지 시즌4(9회) 대구계명문화대학교 | 00 사랑의 메시지 여의도침례 (국명호)<br>30 GOODTV 특별기획 요르단 기행 | 00 CGN 비전특강(664회)<br>40 Q&A 107 소요리문답(70회)<br>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12회) | 10 새롭게하소서(11042회) 임금주 사모 2부 | 00 믿음의 리액션(10회) 경기도 여주시<br>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
| | 10:00 | 10 위대한 유산 |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br>3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 2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3회) | 00 CBS NEWS 10<br>20 더 콜링(114회)<br>50 샬롬 쌀롱(21회) | 00 강연쇼 통(41회) 목 통증 없이 살기<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
| | 11:00 | 00 한국교회를 논하다(566회)<br>50 김지연의 중독전쟁(24회) | 00 행복한 쉼터 옥길 (임재호)<br>30 행복한 쉼터 제주동홍 (박창건) | 1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54회)<br>50 예수동행일기(15회) | 00 올포원(695회) | 00 소문난 성경교실(602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12강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교회와 구원<br>30 선교는 지금(60회) 이용웅 선교사 |
| 오후 | 12:00 | 00 CTS뉴스<br>20 신앙에세이<br>30 생명의 말씀 대치순복음-한별 | 00 GOODTV 뉴스<br>30 오병이어 금요성회 |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0회)<br>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16회) |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본영<br>30 TV강단 만리현성결(조준철) | 20 말씀의 창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br>50 말씀의 창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
| | 13:00 | 00 생명의 말씀 대구동신-권성수/문대원<br>30 [CTS 30년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쉴만한 물가로 | 00 예배실황 꿈의 (김학중)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52회)<br>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5회) |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15회)<br>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7회) | 20 THE 궁금(42회) 십계명 |
| | 14:00 | 00 [생방송]Calling GOD(2400회)<br>50 내가 매일 기쁘게 달빛마을 |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밤 |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br>2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355회) |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br>30 새롭게하소서(11377회) 이수복 사모 1부 |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업(42회) 어쩌다 영포티는 조롱의 대상이 됐을까?<br>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
| | 15:00 | 40 7000미라클 스페셜 | 00 샤론의 꽃 필 때 |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45회)<br>40 생명의 삶 |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403회) 창세기 6강 |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
| | 16:00 | 30 생명의 말씀 원주중부-김미열 | 00 사랑의 메시지 분당선교(윤귀현)<br>30 행복한 쉼터 송전 (권준호) |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84회)<br>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0회)<br>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23회) |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 00 내 삶의 행복(186회)<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 | 17:00 | 00 수영로의 시간 성령집회<br>50 빛으로 소금으로 | 00 김신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톡톡<br>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김자현)<br>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02회) |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90회)<br>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69회)<br>50 행복다이어리(589회) | 00 말씀의 창 아산큰빛교회 길성권 목사<br>30 말씀의 창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
| | 18:00 | 00 백석의 시간 장종현 목사<br>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br>50 신앙에세이 | 1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장종현<br>4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 10 THE NEW 하늘빛향기(9회)<br>50 2025 온누리 사역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3회) | 00 TV강단 약대(송규의)<br>3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
| 저녁 | 19:00 | 00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br>30 생명의 말씀 용인기쁨의-정의호 | 00 사랑의 메시지 군포제일(권태진)<br>30 사랑의 메시지 새은혜 (황형택) | 50 2025 온누리 사역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3회) | 00 TV강단 길튼(채성렬)<br>30 TV강단 베다니(곽주환) |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
| | 20:00 | 00 생명의 말씀 은평성결-유승대<br>30 생명의 말씀 포도나무-여주봉 | 00 더 메시지<br>10 예배실황 지구촌 (서울) | 20 레디온(163회) |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인치유<br>50 CBS 교회소식(1029회) |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br>40 성지가 좋다(509회) 파라오의 흔적과 하나님의 주권 |
| | 21:00 | 00 The 사랑 분당구미교회<br>50 CTS뉴스W | 10 행복한 쉼터 전주남성 (안효관)<br>40 GOODTV NEWS |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400회) 출애굽기 39강<br>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95회) |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8회) |
| | 22:00 | 20 The Ships : 치유의 항해(3회)<br>50 위대한 발걸음 | 00 오륜교회 금요철야 |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br>3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16회)<br>50 예수동행일기(15회) | 00 CBS NEWS 10<br>20 올포원(694회) |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47회)<br>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
| | 23:00 | 00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1050회)<br>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593회) |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밤 | 10 J.D. 그리어의 성탄 메시지(2025)(5회)<br>40 생명의 삶<br>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0회) |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에덴교회)(879회) |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
| | 24:00 | 00 Calling GOD(2400회)<br>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 00 힐링스토리<br>1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br>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2023 KGMLF(7회) | 10 새롭게하소서(11042회) 임금주 사모 2부 | 00 새에덴 철야예배<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
| | 1:00 | 0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13회) | 00 신의 2수<br>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 00 2025 회복축제 〈온전함〉(26회)<br>4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185회) | 00 산위의마을 말씀 (김영준)(267회)<br>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30회) |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br>50 리바이즈 워십 |
| | 2:00 | 00 TV찬양예배 한성교회<br>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 10 매일 주와 함께 |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528회) |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589회) | 00 말씀의 창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br>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br>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33회) |
| | 3:00 | 00 7000미라클 스페셜<br>50 힐링송 | 10 GOODTV 특별간증 | 00 [Global Sermon] Craig Groeschel's A Better Way(5회)<br>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97회) | 10 새롭게하소서(11376회) 박용규 목사 |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
| | 4:00 |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br>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br>30 CTS 경건예배 송도가나안/김지훈<br>45 곽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 00 비전설교 분당우리 (이찬수)<br>3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 10 [말씀] 박신웅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279회) |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김지철)(3816회) 전도서 5강<br>50 CBS 교회소식(1029회) | 0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

KNOC 한국석유공사

# 자원영토 확장으로
#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영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KNOC 한국석유공사 KNOC 한국석유공사 KNOC 한국석유공사